

# 서산시 청년 일자리 수요조사 연구

2018. 12



# 제 출 문

서산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산시 청년 일자리 수요조사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8. 12

(재)충남연구원

원장 윤 황



## 【요 약】

###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불황 등 일련의 경제위기 이후 점점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정부는 이에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고 강도 높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국가주도의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군단위에서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서산시도 예외일 수 없음

### 2. 연구의 목적

-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군단위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가 많지 않음
- 청년 실업문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 따라서 서산시 내 거주 청년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산시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임

### 3. 연구의 범위

#### ○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기업을 대상

####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8년을 기준년도로 함

#### ○ 내용적 범위

- 현황 및 관련정책 검토
- 서산시 청년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수요조사
-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시사점 도출

### 4. 연구의 방법 및 자료



#### ■ 설문지 개요

모집단	서산시 거주 청년	서산시 기업체
표본	134명	110개

- 모집단: 서산시 거주 청년, 서산시 기업체(제조업)
- 표본: 서산시 청년 134명, 서산시 기업체 110개
- 표본추출: 청년 조사의 경우 랜덤추출법 활용, 기업조사의 경우 리서치 업체 D/B 활용
- 설문은 전문 리서치기관 조사원의 청년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

## 5. 서산시 청년인구 및 고용률

### ■ 청년인구 현황(18-34세 기준)

- 2017년 서산시의 전체인구는 170,402명이며 이 중 청년 인구는 33,799명으로 서산시의 청년 인구 비중은 19.8% 임
- 서산시 청년 인구 비중 19.8%는 전국의 22.3%, 충남의 20.6%보다 낮고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 이어 충청남도 내 4번째 순위임
- 서산시의 청년인구는 1998년 44,630명이었으며, 2000년 43,255명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33,799명까지 감소
- 서산시 청년인구의 감소는 서산시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필요성을 시사

### ■ 청년고용 현황(15-29세 기준)

- 서산시의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말 현재 각각 65.2%와 6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9.9%와 40.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서산시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 29.7%에서 2015년 27.9%로 큰 변동 없었으나 2016년 30.9%, 2017년 40.4%로 최근 2개년 간 상승 추세임

〈서산시의 청년층(15-29세) 고용 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청년층 인구(명)	28,651	28,852	29,186	27,238	29,808	28,351
경제활동인구	12,351	11,652	11,486	8,538	12,408	14,151
경제활동참가율 (%)	43.1 (45.4)	40.4 (46.0)	39.4 (46.4)	31.3 (48.0)	41.6 (46.7)	49.9 (44.8)
고용률(%)	29.7 (43.0)	31.8 (42.0)	29.4 (42.5)	27.9 (44.0)	30.9 (42.5)	40.4 (40.4)

주) 괄호 안은 청년층 충남 평균 비율을 나타냄. 2013~2017년 하반기 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통계청, 「연령 및 성별 인구」에서 재구성

- 서산시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충남 청년층 평균보다 크게 낮았으나, 2017년 충남 청년층 고용률 평균값과 비슷해짐
- 연도별 청년 고용률을 보면 2012년 이후 나빠지는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 2016년부터 청년층 고용률 상승 추세임
- 2017년 말 서산시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충남 평균 수준이며,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18-34세 기준)

- 청년층 전체 피보험자 수 자료를 근거로 살펴본 서산시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율에 있어서 제조업이 63.0%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2%), 도매 및 소매업(4.5%), 건설업(3.7%), 교육 서비스업(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1%), 운수 및 창고업(2.4%),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산시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전 연령층 평균보다 높은 산업분야로는 제조업이며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전 연령층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 청년 일자리 사업 고찰

### ■ 청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고용노동부 사업)

유형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교육훈련, 창업·창직	전남 완도	완도 수산물식품산업전문인 력 6차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 지역 특산 수산물과 연계를 통한 수산물식품산업의 활성화</li> <li>- 수산물식품자원의 가공/유통실무 전문 교육 후 수산물식품산업분야 취업연계 및 수산물식품개발 창업(직)</li> <li>- 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수산물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li> </ul>
창업·창직	전북	전북 지역 특화산업 분야 청년창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유출 심각 및 생계형 창업 기업 비중이 큰 전북 지역 산업 배경에 따라 전북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맞는 경쟁력 있는 기술창업 육성</li> <li>- 전북 특화산업 분야인 탄소, 농생명, 문화 및 이를 융합한 우수 사업 아이템 보유자 발굴 및 사업화 촉진 지원</li> </ul>
교육훈련	충북 단양	단양군 휴양레저관광 로컬잡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양레저관광 인턴양성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li> <li>- 단양시 의료, 요양시설 증가로 의료, 요양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직업교육</li> <li>- 헬스코디네이터, 실버건강관리사, 힐링휴양캠핑지도사, 산안관광가이드, 레저안전지도사 등 교육 및 휴양레저관광 기관 및 산업 연계</li> </ul>
기타 고용서비스	전북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허브, 잡영챌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도내 취업준비생(특성화고 및 대학졸업예정자, 졸업자) 대상으로 지역 대표기업 및 우수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유도를 위한 플랫폼 기반 마련</li> <li>- 지역인재 공개채용 오디션 잡영챌린지 개최, 단계별 서바이벌 방식의 취업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li> </ul>
교육훈련, 창업·창직	경북 포항	포항지역 여성의 '일家양득 행복家득'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 퇴직자들에 대한 가계안정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li> <li>-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여성친화 업종 전환 유도</li> </ul>

##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행정안전부 사업)

유형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민간취업 연계형	전북 완주	청년 보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로컬푸드 이동 마켓</li> <li>- 사업에 참여할 운영단체 1개소와 보부상 활동에 참여할 청년 5명 모집 :사업 운영 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출연기관, 비 영리단체</li> </ul>
	부산 본청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대구와 연제구 2개동 시범 선정</li> <li>-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li> <li>- 청년들이 문화지원, 소외대상발굴 및 관리, 마을 정보알림, 마을보안 등의 서비스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마을 보안관과 같은 역할</li> </ul>
지역정책 지원형	충남 아산	마을디자인 청장년 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업 청년 작가 대상 인건비, 작업 재료비 등 지원</li> <li>-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마을 특산물 가공·유통, 마을 홍보관 운영 및 디자인 공동체 육성, 학교 방과후 예체능 과목 등 지원</li> </ul>
	대구 본청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li> <li>- 참여 기업은 채용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됨</li> <li>- 사업 지원 인력에게는 채용연계형 직무 심화교육 및 디자인 멘토링 제공</li> </ul>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인천 본청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moving call)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남동 국가산업단지 내 열악한 근거리 이동수단 문제 해결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li> <li>- 산단 내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산단 곳곳에 ‘무빙 콜’ 차량 6대 배치 및 콜 시스템을 통한 요청의 경우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li> </ul>
	전남 곡성	청년창업 및 청년공방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관내·외 청년에게 창업교육 및 컨설팅, 점포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사업장 임대료 지원</li> <li>-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개소당 총사업비의 90%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지원, 월 임대료 최대 100만원 기준 90%까지 지원</li> </ul>

## 7. 서산시 청년 일자리 수요조사 분석결과 및 시사점

### ■ 서산시의 산업구조

서산시 주요 산업		
석유화학 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 이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 ■ 청년채용 현황 및 문제점

서산시 고용시장의 특징		
자립적인 고용시장 (높은 지역인재 채용비중)	제조업분야 부족한 여성일자리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의 구인란 심화
→ 자립적인 고용시장으로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음 → 서비스산업 육성 등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 필요 → 청년과 중소기업간 친밀도 향상 필요		

### ■ 청년취업 현황 및 문제점

서산시 요소시장 특징				
수도권 중소기업 선호	낮아지는 일자리 눈높이	여성의 지역정착 성향	제조업 취업 기피	부족한 오프라인 구직정보
→ 서산시의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이를 감안한 교육이 필요 → 남성의 경우 지역기업의 홍보와 친밀도를 높이는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서산시의 경우 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 필요 → 온라인 정보보다 취업박람회, 리쿠르팅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 청년취업 미스매칭

서산시 고용시장 미스매칭				
일자리 미스매칭			직무교육 미스매칭	정주환경 미스매칭
임금수준 격차 발생	관련전공 일자리 부족	지역 중소기업 비 선호	직업능력 부족	높은 이직률
→ 사무직의 평균 초임연봉이 서비스/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기대수준과는 차이가 큼 → 서산시에서는 학력 및 전공과 일자리 직무 간에 미스매칭이 있으며, 이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은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서산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 필요 → 지역 내 기업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직무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 서산시의 경우 청년들의 이직의향이 높은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사전 직무교육이 중요				

## ■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서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일자리 사업 낮은 인지도	부족한 직무교육	낮은 교육수준	청년들의 높은 참여의지
→ 아직까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져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필요 → 선진국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기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청년들의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다면, 지역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가능			

지역 내 취업을 위한 주체들의 역할					
기업이 해야 할 일		청년이 해야 할 일		서산시가 해야 할 일	
적정한 임금지급	복지/문화 생활지원	일자리 높이 조정	중소기업 인식변화	채용우수 기업지원	일자리 지원조직 확대
→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산시 차원에서 지역 기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 →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 → 서산시에서는 채용우수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확대도 필요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제언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일자리		
필요 일자리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성
(기업)광업/제조업	(청년)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업체 87.3%, 청년 92.6%
→ 서산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제조업은 물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대부분의 기업체와 청년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필요성 인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추진 분야	우선추진 업종
취업장려금, 취업연계 지원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 식품
→ 기존의 사업들이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초점이 있었다면, 기업체의 입장을 감안하여, 보다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성 있음 → 서산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성공장려금,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 청년들의 교육·훈련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자동차와 바이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추진 사업(기업)		우선추진 사업(청년)	
지역정착지원	민간취업연계	지역정착지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 서산시에서는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사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에도 노력해야함(청년에게 올바른 창업기회 제공이 필요)			

## 8. 정책제언

### ■ 건실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일자리 창출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 서산시의 경우 남성중심의 일자리 구조로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 필요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식산업,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

###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노력

- 서산시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방지
- 찾아가는 취업 박람회 등 오프라인 취업정보 확대 필요
- 임금, 전공 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노력 필요
- 기업 맞춤형, 산업 맞춤형 직무교육 필요
- 청년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정주환경, 일자리환경 개선 필요

## ■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질 담보

-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 조직의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사업 홍보 강화 필요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직무교육 발굴 필요
- 직무교육 외 일자리 창출사업의 다양화 필요
  - 교육·훈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청년 취업성공장려금,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의 다양화 시도
-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지역정착지원 우선 추진
  -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필요





# 목 차

<b>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	<b>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추진체계	8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8
<b>II. 서산 청년인구 및 고용 현황</b>	<b>11</b>
제1절 청년인구	13
1. 서산시 청년인구 비중	13
2. 서산시 청년인구(18~34세) 추이	15
제2절 청년 고용현황	16
1. 충청남도 청년 고용 현황	16
2. 서산시 청년층 고용 현황	20
제3절 시사점	24
<b>III. 청년 일자리 사업 고찰</b>	<b>27</b>
제1절 충남의 청년 일자리정책	29
제2절 타 시도·시군 우수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32
<b>IV. 서산시 청년 일자리 실태 조사</b>	<b>37</b>
제1절 설문 의 개요	39
1. 모집단	39
2. 표본수 및 조사방법	39
제2절 분석결과	41
1. 기업체 조사	41
2. 청년 조사	48
<b>V. 요약 및 시사점</b>	<b>91</b>
<b>부 록</b>	<b>105</b>
<b>참고문헌</b>	<b>118</b>

## 표 목차

〈표 1〉 주요국가 연도별 청년층(15~24세)실업률 추이 .....	3
〈표 2〉 청년실태조사방법 .....	9
〈표 3〉 2017년 전국 시도별 청년인구 비중 .....	13
〈표 4〉 충청남도 시군구별 청년인구 비중 .....	14
〈표 5〉 연도별 서산시 청년인구 .....	15
〈표 6〉 충청남도의 고용 관련 지표 .....	16
〈표 7〉 충청남도의 청년층 고용 관련 지표 .....	17
〈표 8〉 시도별 청년층(15-29세) 실업률 추이 .....	17
〈표 9〉 충청남도의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18
〈표 10〉 충청남도의 산업별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8년 7월 기준) .....	19
〈표 11〉 서산시의 고용 관련 지표 .....	20
〈표 12〉 서산시의 청년층(15-29세) 고용 관련 지표 .....	21
〈표 13〉 시군구별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 .....	21
〈표 14〉 서산시의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22
〈표 15〉 서산시의 산업별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8년 7월 기준) .....	23
〈표 16〉 설문조사 표본수 .....	39
〈표 17〉 조사방법 .....	40
〈표 18〉 기업체 비중 .....	41
〈표 19〉 평균 근로자수 .....	42
〈표 20〉 정규직 비중 .....	43
〈표 21〉 학력별 비중 .....	44
〈표 22〉 2년간 고용인원 .....	45
〈표 23〉 2년간 채용 청년 지역 비중 .....	47
〈표 24〉 채용 시 성별 비중 .....	48
〈표 25〉 성별 채용 이유 .....	49
〈표 26〉 청년인력 수급 어려움 여부 .....	49
〈표 27〉 청년고용 어려움 이유 .....	50
〈표 28〉 정규직 기준 초임연봉 .....	51
〈표 29〉 현재 초임수준에서 청년채용의 어려움 .....	52
〈표 30〉 채용 시 선호하는 학력 .....	53
〈표 31〉 선호하는 학력 청년채용의 어려움 .....	53
〈표 32〉 청년채용 시 선호 전공 .....	54

〈표 33〉 선호하는 전공 청년채용의 어려움 .....	55
〈표 34〉 일자리 창출사업 이수 시 채용 가산점 의향 .....	56
〈표 35〉 연봉인상 의향 .....	56
〈표 36〉 청년 보유품의 영향력 .....	57
〈표 37〉 직업능력 만족도 .....	57
〈표 38〉 최근 2년간 신입직원 이직경험 .....	58
〈표 39〉 주요 이직이유 .....	59
〈표 40〉 직무교육 시 이직률 감소여부 .....	59
〈표 41〉 청년 고용문제 해결 주체 .....	60
〈표 42〉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인지도 .....	60
〈표 43〉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충분성 .....	61
〈표 44〉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적절성 .....	62
〈표 45〉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지역기업이 해야 할 일 .....	63
〈표 46〉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일 .....	63
〈표 47〉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충남과 서산시가 해야 할 일 .....	64
〈표 48〉 서산시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	64
〈표 4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	65
〈표 5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업종 .....	66
〈표 51〉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	66
〈표 52〉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필요성 .....	67
〈표 53〉 학력 비중 .....	68
〈표 54〉 전공 비중 .....	68
〈표 55〉 취업 선호 기업 .....	69
〈표 56〉 취업 선호 지역 .....	70
〈표 57〉 비정규직 취업 의향 .....	70
〈표 58〉 서산시 기업체 취업의향 .....	71
〈표 59〉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의향이 있는 이유 .....	71
〈표 60〉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 .....	72
〈표 61〉 일자리 정보 얻는 곳 .....	73
〈표 62〉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	74
〈표 63〉 받기 원하는 초임연봉 .....	75
〈표 64〉 본인의 학력보다 낮은 채용직 취업의향 .....	75
〈표 65〉 전공 관련 일자리 충분여부 .....	76
〈표 66〉 서산시 중소기업 취업의향 .....	77
〈표 67〉 취업 시 스펙의 영향력 .....	77
〈표 68〉 본인 스펙의 수준 .....	78

〈표 69〉 직무교육 여부 .....	78
〈표 70〉 직무교육 만족도 .....	78
〈표 71〉 수도권 기업 이직 의향 .....	79
〈표 72〉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이유 .....	80
〈표 73〉 직무교육 시 이직률 감소여부 .....	80
〈표 74〉 청년 고용문제 해결 주체 .....	81
〈표 75〉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인지도 .....	81
〈표 76〉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충분성 .....	82
〈표 77〉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적절성 .....	83
〈표 78〉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 참여의향 .....	83
〈표 79〉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	84
〈표 80〉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지역기업이 해야 할 일 .....	84
〈표 81〉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일 .....	85
〈표 82〉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충남과 서산시가 해야 할 일 .....	85
〈표 83〉 서산시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	86
〈표 8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	87
〈표 8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업종 .....	88
〈표 86〉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	88
〈표 87〉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필요성 .....	89

## 그림 목차

[그림 1] 청년 취업자 수 및 취업률 .....	4
[그림 2] 청년 실업자 및 실업률 .....	4
[그림 3] 연령별 고용률 .....	5
[그림 4] 연구의 범위 .....	7
[그림 5] 연구관련 기관 .....	8
[그림 6] 연구의 방법 .....	9
[그림 7] 설문조사 진행순서 .....	10
[그림 8] 서산시 청년인구 추이 .....	15
[그림 9] 설문의 순서 .....	40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불황 등 일련의 경제위기 이후 점점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고용시장, 특히 청년고용시장의 문제는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10% 미만인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일자리 공백이 생기면서 젊은 층 실업률이 매우 낮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 주요국가 연도별 청년층(15~24세)실업률 추이

(단위 : %)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대한민국
2014	23.5	7.8	6.3	16.3	13.4	19.3	10.0(9.0)
2015	24.0	7.2	5.5	15.4	11.6	17.8	10.5(9.2)
2016	24.1	7.0	5.1	13.2	10.4	16.4	10.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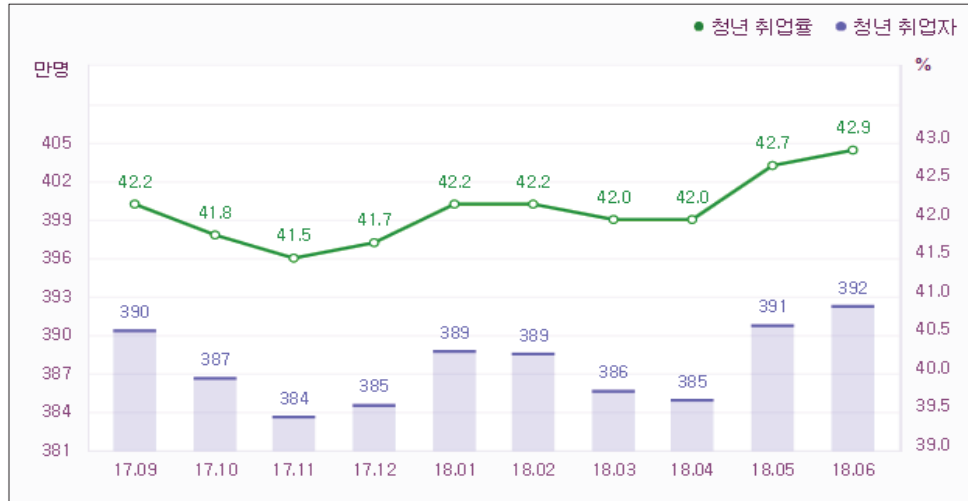
주: ( ) 안은 15~29세 실업률, 우리나라(15~29세)를 제외한 주요국가의 청년실업률 조사대상은 15~24세임

-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청년 노동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sup>1)</sup>
  - 2018년 3월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청년 취업자 수는 392만 3천명, 청년 취업률<sup>2)</sup>은 42.9%로 나타남
  - 2017년 11월 취업률 41.5%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률이 증가하는 양상이나 여전히 50% 미만으로 전반적으로는 매우 낮은 편

1)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일자리 공백이 생기면서 젊은 층 실업률이 매우 낮아짐.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들이 은퇴한 후에는 자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2) 취업률=(취업자수÷노동력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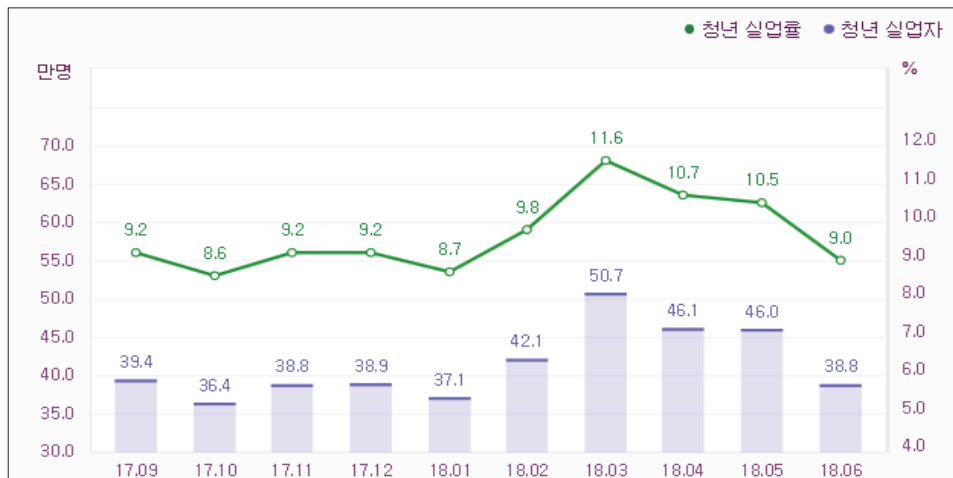
[그림 1] 청년 취업자 수 및 취업률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세~29세) 대상

- 2018년 6월 청년 실업자 수는 38.8만명, 청년 실업률<sup>3)</sup>은 9.0%로 나타났다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9.0%, 2013년 9.3%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0.0%로, 10%대에 진입하였고,
- 이후 2015년 10.5%, 2016년 10.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들어서야 다소 상승세가 꺾였으나, 2018년 다시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양상

[그림 2] 청년 실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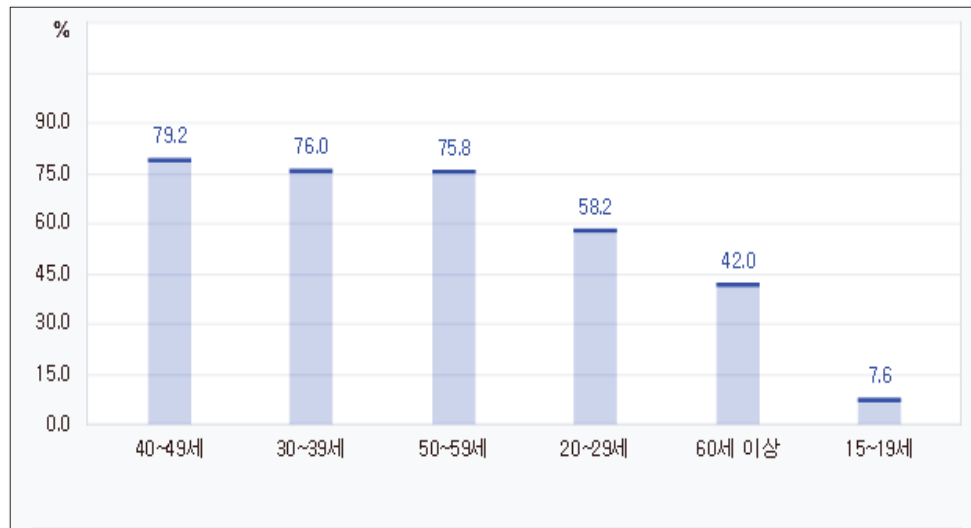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세~29세) 대상

3)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 또한 20~29세 청년 고용률<sup>4)</sup>은 58.2%로 20세 이상 인구 중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임

[그림 3] 연령별 고용률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세~29세) 대상

- 정부는 이에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고 강도 높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국가주도의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군단위에서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충남은 그동안 7%대의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특히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그동안 충남의 성장을 이끈 주요 시군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발전과 성장이 지역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자본집약적이고 자동화 제조업이 많아 고용창출은 중소기업보다 적음

4) 15세 이상 인구 중 연령대별 취업자의 비율

- 특히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서산시도 예외일 수 없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불황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청년실업률을 높이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임금 미스매치, 교육수준 미스매치, 전공 미스매치 등)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음
  - 현재의 청년 취업난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정부정책은 일자리 수 확대에 치중되어 있음

## 제2절 연구의 목적

-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군단위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가 많지 않음
- 청년 실업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일명 ‘취업절벽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 따라서 서산시 내 거주 청년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산시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임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충청남도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기업을 대상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함
- 내용적 범위
  - 현황 및 관련정책 검토
  - 서산시 청년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수요조사
  -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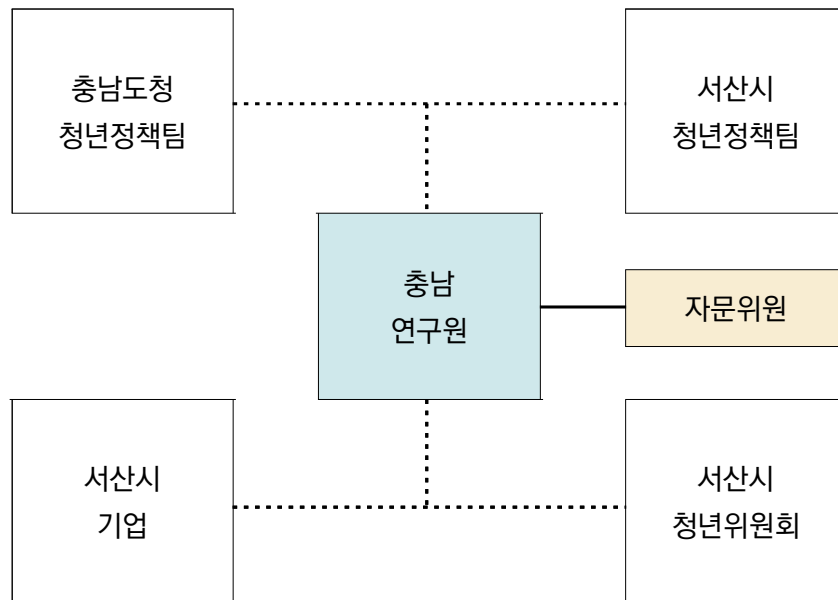
[그림 4]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추진체계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서산시의 청년 일자리 수요조사 연구임
- 따라서 충청남도청 청년정책팀, 서산시 청년정책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의 의견 수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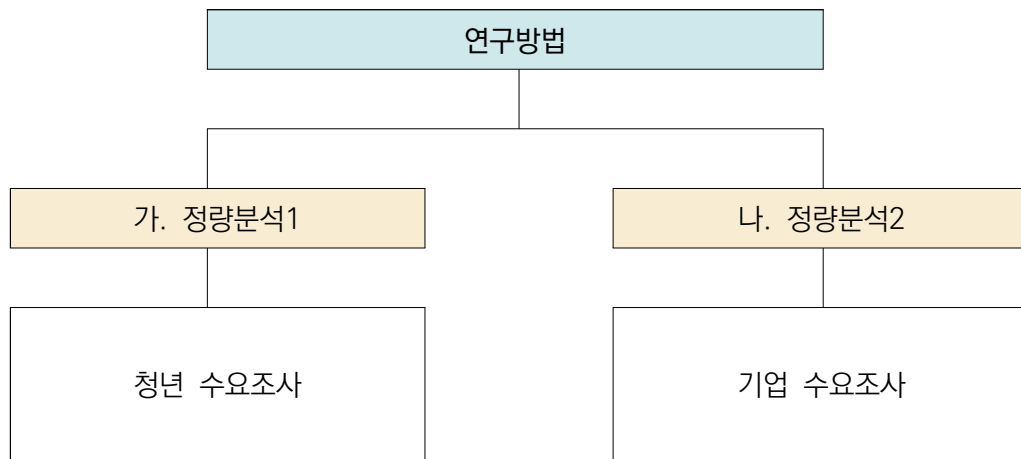
[그림 5] 연구관련 기관



##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 본 연구는 서산시 청년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한 정량분석과 서산시 청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6]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서산시 청년 일자리 수요조사 자료임

## ■ 설문지의 개요

모집단	서산시 거주 청년	서산시 기업체
표본	134명	1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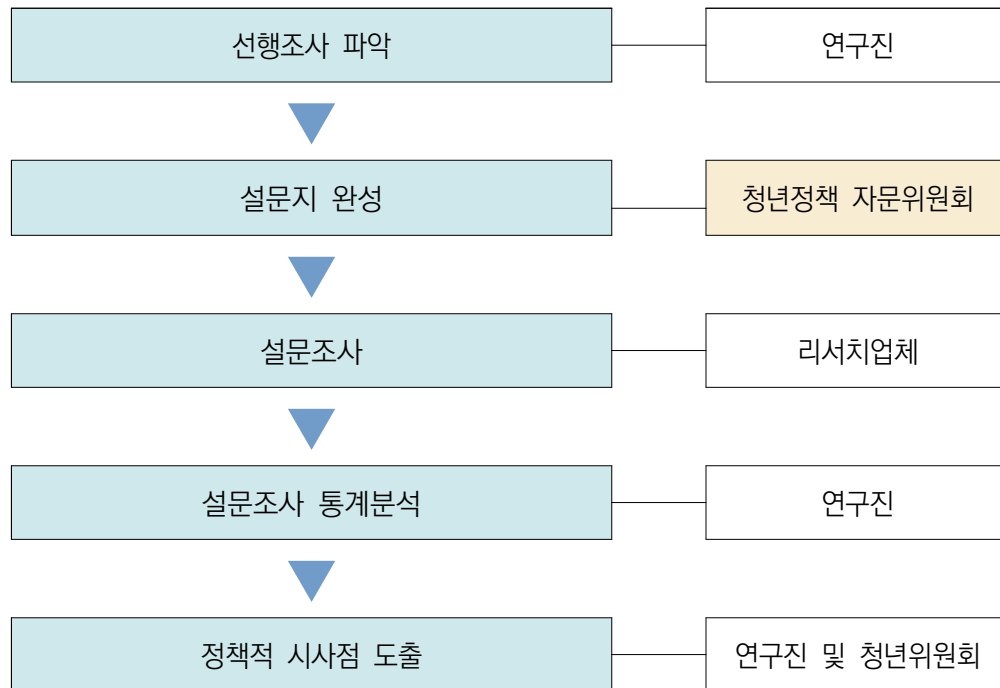
- 모집단: 서산시 거주 청년, 서산시 기업체
- 표본: 서산시 청년 134명, 서산시 기업체 110개
- 표본추출: 청년 조사의 경우 랜덤추출법 활용, 기업조사의 경우 D/B 활용
- 설문은 전문 리서치기관 조사원의 청년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

〈표 3〉 청년실태조사방법

조사 방법	전문조사원의 청년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

- 선행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고, 청년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설문지 수정·보완

[그림 7] 설문조사 진행순서





## II. 서산 청년인구 및 고용 현황

---

1. 청년인구
2. 청년 고용 현황
3. 시사점



## 제1절 청년인구

### 1. 서산시 청년인구<sup>5)</sup> 비중

■ 2017년 충청남도 전체 인구는 2,092,354명이며 이중 청년인구는 430,052명

○ 충청남도의 청년 인구 비중은 20.6%로 전국의 22.3%보다 낮고, 17개 지자체 중 12번째 순위임

〈표 3〉 2017년 전국 시도별 청년인구 비중

(단위: 명, %)

행정구역(시군구)별	전체인구	청년(18~34세)인구	비중	순위
전국	51,230,704	11,422,121	22.3	
<b>충청남도</b>	<b>2,092,354</b>	<b>430,052</b>	<b>20.6</b>	<b>12</b>
서울특별시	9,724,400.5	2,430,412	25.0	1
대전광역시	1,497,290	354,309	23.7	2
광주광역시	1,457,271	339,652	23.3	3
인천광역시	2,916,646	679,538	23.3	4
울산광역시	1,162,347	267,171	23.0	5
경기도	12,681,347.5	2,889,554	22.8	6
대구광역시	2,460,368.5	542,015	22.0	7
부산광역시	3,445,833	744,120	21.6	8
충청북도	1,582,443.5	335,299	21.2	9
세종특별자치시	260,542	54,321	20.8	10
제주특별자치도	644,056.5	132,468	20.6	11
경상남도	3,356,330	683,232	20.4	13
강원도	1,536,689	304,889	19.8	14
전라북도	1,847,460.5	365,803	19.8	15
경상북도	2,678,112	519,227	19.4	16
전라남도	1,887,213	350,061	18.5	1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sup>6)</sup>

5) 충청남도 조례에 따르면 청년층을 18~34세로 정의함

6)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

■ 2017년 서산시의 전체인구는 170,402명이며 이중 청년 인구는 33,799명

- 서산시의 청년 인구 비중은 19.8%로 전국의 22.3%, 충남의 20.6%보다 낮고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 이어 충청남도 내 4번째 순위임

〈표 4〉 충청남도 시군구별 청년인구 비중

(단위: 명, %)

행정구역(시군구)별	전체인구	청년(18~34세)인구	비중	순위
충청남도	2,092,354	430,052	20.6	
<b>서산시</b>	<b>170,402</b>	<b>33,799</b>	<b>19.8</b>	<b>4</b>
천안시	620,816	157,216	25.3	1
아산시	305,179	66,872	21.9	2
당진시	166,158	33,204	20.0	3
계룡시	43,120	8,448	19.6	5
공주시	108,324	20,242	18.7	6
홍성군	100,009	17,725	17.7	7
논산시	121,534	21,469	17.7	8
보령시	102,696	17,616	17.2	9
예산군	80,225	12,547	15.6	10
청양군	32,579	5,083	15.6	11
태안군	63,503	9,833	15.5	12
부여군	68,961	10,402	15.1	13
금산군	53,786	7,902	14.7	14
서천군	55,066	7,697	14.0	1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 2. 서산시 청년인구(18~34세) 추이

### ■ 서산시의 청년인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서산시의 청년인구는 1998년 44,630명이었으며, 2000년 43,255명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33,799명까지 감소

〈표 5〉 연도별 서산시 청년인구

(단위: 명, %)

시점	청년인구
2000	43,255
2010	34,390
2015	34,539
2016	34,344
2017	33,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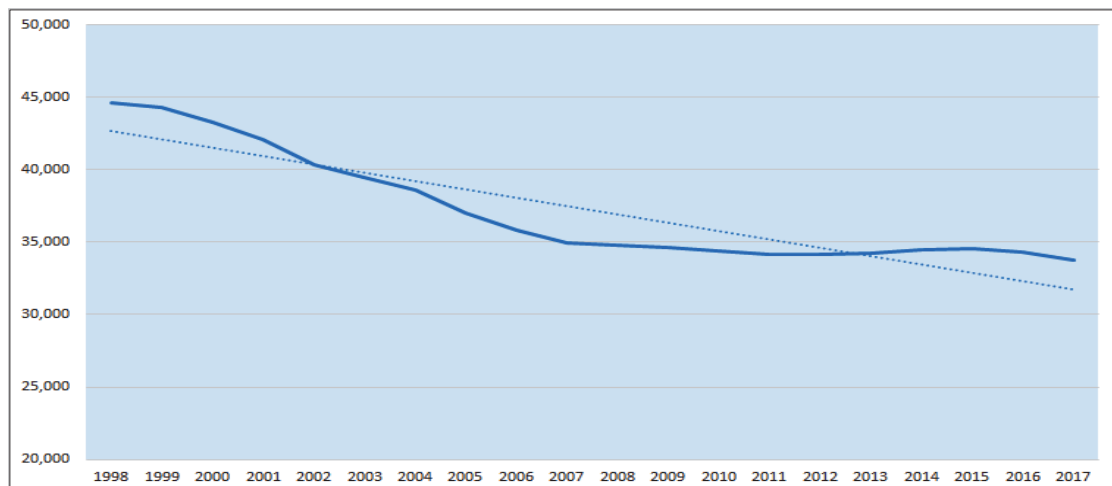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 ■ 서산시의 전체인구는 1998년 150,102명 이후, 2017년 170,401명까지 증가 하였으나, 청년인구는 역 추세에 있음

- 서산시 청년인구의 감소는 서산시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정책이 필요

[그림 8] 서산시 청년인구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 제2절 청년 고용현황

### 1. 충청남도 청년 고용 현황

#### ■ 청년 고용 현황

- 충청남도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2년 185천명에서 2016년 201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세종시 분리에 따라 174천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음
- 충청남도의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말 현재 각각 64.1%와 62.3%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4.8%와 40.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6〉 충청남도의 고용 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 이상 인구(천명)	1,780	1,821	1,865	1,925	1,987	1,831
경제활동인구(천명)	1,121	1,173	1,203	1,242	1,266	1,174
경제활동참가율(%)	63.0 (61.6)	64.4 (61.7)	64.5 (62.7)	64.5 (62.8)	63.7 (62.9)	64.1 (63.2)
고용률(%)	61.5 (59.6)	62.7 (59.8)	62.4 (60.5)	62.3 (60.5)	61.7 (60.6)	62.3 (60.8)
실업률(%)	2.3 (3.2)	2.8 (3.1)	3.3 (3.5)	3.5 (3.6)	3.2 (3.7)	2.8 (3.7)

주) 괄호 안은 전국 평균 비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에서 재구성

-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2년 43%에서 2017년 4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업률은 2012년 5.4%에서 2017년 9.8%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충청남도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청년층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7년 세종시 분리에 따라 전국평균 지표값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표 7〉)

〈표 7〉 충청남도의 청년층 고용 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청년층 인구(천명)	407	409	413	421	431	388
경제활동인구(천명)	185	188	192	202	201	174
경제활동참가율(%)	45.4 (43.5)	46.0 (42.9)	46.4 (44.5)	48.0 (45.3)	46.7 (46.3)	44.8 (46.7)
고용률(%)	43.0 (40.3)	42.0 (39.5)	42.5 (40.5)	44.0 (41.2)	42.5 (41.7)	40.4 (42.1)
실업률(%)	5.4 (7.5)	8.6 (8.0)	8.4 (9.0)	8.3 (9.1)	8.9 (9.8)	9.8 (9.8)

주) 청년층은 15-29세, 괄호 안은 청년층 전국 평균 비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각 연도에서 재구성.

○ 청년실업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청년층 비율이 높은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타 지역보다 청년층 고용 상황이 열악함

○ 2017년 말 충청남도의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8〉 시도별 청년층(15-29세)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평균	7.5	8.0	9.0	9.1	9.8	9.8
충청남도	5.4	8.6	8.4	8.3	8.9	9.8
서울특별시	8.3	8.7	10.4	9.3	10.3	10.1
부산광역시	8.7	8.8	9.0	9.7	9.9	11.5
대구광역시	8.0	9.9	11.5	10.1	12.0	11.5
인천광역시	10.4	9.3	12.1	11.8	11.5	10.5
광주광역시	7.6	7.4	6.8	7.6	9.8	7.5
대전광역시	8.9	7.3	7.8	8.9	8.2	7.7
울산광역시	7.4	6.7	8.0	9.3	11.1	8.5
세종특별자치시	-	-	-	-	-	7.2
경기도	6.9	7.3	8.3	9.0	9.8	10.5
강원도	6.6	7.1	10.3	12.6	10.1	8.0
충청북도	6.6	6.8	8.8	7.2	6.4	6.5
전라북도	6.8	6.4	6.3	5.7	9.4	9.3
전라남도	5.4	7.0	9.5	8.5	10.5	9.7
경상북도	6.8	10.6	7.7	8.8	10.3	9.5
경상남도	5.9	5.8	7.0	8.6	8.4	8.6
제주도	5.3	5.7	6.0	5.1	5.4	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각 연도에서 재구성

## ■ 충남지역 산업별 취업자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통해 본 충남지역의 피보험 근로자수는 2018년 7월 현재 490,569명으로 전년 동월의 474,378명에 비해 3.3% 증가
- 산업별 피보험 근로자수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4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8%, 건설업 6.6%, 도매 및 소매업 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 교육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업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피보험 근로자의 비중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충남지역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44.6%로 전국 평균 27.3%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여타 산업 부문에는 대부분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표 9〉 충청남도의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단위: 명, %)

산업 대분류	2017년 7월	2018년 7월		증감률
	근로자수	근로자수	구성비	
합계	474,378	490,569	100(100)	3.3
농업, 임업 및 어업	3,775	3,753	0.8(0.3)	-0.6
광업	515	513	0.1(0.1)	-0.4
제조업	215,526	219,025	44.6(27.3)	1.6
전기, 가스, 증기 사업	5,750	7,116	1.5(0.6)	19.2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3,514	3,652	0.7(0.6)	3.8
건설업	30,938	32,590	6.6(5.3)	5.1
도매 및 소매업	26,127	27,429	5.6(11.6)	4.7
운수 및 창고업	17,258	17,026	3.5(4.6)	-1.4
숙박 및 음식점업	13,279	14,709	3.0(4.5)	9.7
정보통신업	2,851	2,964	0.6(4.6)	3.8
금융 및 보험업	9,597	9,779	2.0(3.6)	1.9
부동산업	7,491	7,884	1.6(2.6)	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807	20,504	4.2(5.6)	3.4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업	19,309	17,724	3.6(8.7)	-8.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874	15,905	3.2(2.4)	12.8
교육 서비스업	16,090	17,746	3.6(3.0)	9.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5,009	57,741	11.8(11.2)	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17	4,298	0.9(1.1)	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9,751	10,204	2.1(2.3)	4.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7	0.0(0.0)	100

주) 괄호 안은 전국 평균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에서 재구성



## ■ 충남지역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 2018년 7월 현재 충남지역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70,159명으로 청년층 전체 피보험자 수 134,300명의 5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 연령층 평균 비율 44.6%를 7.6%p 상회하고 있는 것임
- 충남지역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율에 있어서 제조업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8%), 도매 및 소매업(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9%), 교육 서비스업(3.7%), 건설업(3.6%), 숙박 및 음식점업(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전 연령층 평균보다 높은 산업분야로는 제조업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사업, 정보통신업 정도를 들 수 있고,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

〈표 10〉 충청남도의 산업별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8년 7월 기준)

(단위: 명, %)

산업대분류	전 연령	청년층(18-34세)
합계	490,569(100.0)	134,300(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753(0.8)	599 (0.4)
광업	513(0.1)	32 (0.0)
제조업	219,025(44.6)	70,159 (52.2)
전기, 가스, 증기 사업	7,116(1.5)	2,723 (2.0)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3,652(0.7)	519 (0.4)
건설업	32,590(6.6)	4,875 (3.6)
도매 및 소매업	27,429(5.6)	7,790 (5.8)
운수 및 창고업	17,026(3.5)	2,063 (1.5)
숙박 및 음식점업	14,709(3.0)	4,213 (3.1)
정보통신업	2,964(0.6)	1,308 (1.0)
금융 및 보험업	9,779(2.0)	2,610 (1.9)
부동산업	7,884(1.6)	554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504(4.2)	6,602 (4.9)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업	17,724(3.6)	3,428 (2.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905(3.2)	3,433 (2.6)
교육 서비스업	17,746(3.6)	5,008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7,741(11.8)	14,456 (1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98(0.9)	1,591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10,204(2.1)	2,337 (1.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7(0.0)	- (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에서 재구성

## 2. 서산시 청년층 고용 현황

### ■ 청년고용 현황

- 서산시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2년 12,351명에서 2015년 8,538명으로 지속 적으로 감소하다 2016년 12,408명, 2017년 14,151명으로 증가함
- 서산시의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말 현재 각각 65.2%와 6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9.9%와 40.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11〉 서산시의 고용 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 이상 인구(천명)	130.4	133.8	137.3	140.0	144.1	142.9
경제활동인구(천명)	84.9	85.9	88.5	89.8	91.0	93.2
경제활동참가율(%)	65.1 (63.0)	64.2 (64.4)	64.5 (64.5)	64.2 (64.5)	64.5 (63.7)	65.2 (64.1)
고용률(%)	63.8 (61.5)	62.6 (62.7)	62.0 (62.4)	61.4 (62.3)	62.3 (61.7)	63.4 (62.3)
실업률(%)	1.9 (2.3)	1.4 (2.8)	2.6 (3.3)	3.2 (3.5)	2.3 (3.2)	2.7 (2.8)

주) 괄호 안은 충남 평균 비율을 나타냄. 2012년 3/4분기, 2013~2017년 하반기 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 서산시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 29.7%에서 2015년 27.9%로 큰 변동 없었으나 2016년 30.9%, 2017년 40.4%로 최근 2개년 간 상승 추세임
- 서산시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충남 청년층 평균보다 크게 낮았으나, 2017년 충남 청년층 고용률 평균값과 비슷해짐(〈표12〉)

〈표 12〉 서산시의 청년층(15-29세) 고용 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청년층 인구(명)	28,651	28,852	29,186	27,238	29,808	28,351
경제활동인구	12,351	11,652	11,486	8,538	12,408	14,151
경제활동참가율(%)	43.1 (45.4)	40.4 (46.0)	39.4 (46.4)	31.3 (48.0)	41.6 (46.7)	49.9 (44.8)
고용률(%)	29.7 (43.0)	31.8 (42.0)	29.4 (42.5)	27.9 (44.0)	30.9 (42.5)	40.4 (40.4)

주) 괄호 안은 청년층 총남 평균 비율을 나타냄. 2013~2017년 하반기 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통계청, 「연령 및 성별 인구」에서 재구성

○ 연도별 청년고용률을 보면 2012년 이후 나빠지는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 2016년부터 청년층 고용률 상승 추세임

○ 2017년 말 서산시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충남 평균 수준이며,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13〉 시군구별 청년층(15-29세)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충남평균	43.0	42.0	42.5	44.0	42.5	40.4
서산시	33.9	31.8	29.4	27.9	30.9	40.4
천안시	45.4	34.6	37.4	35.6	34.2	41.1
공주시	37.3	29.2	30.3	26.0	34.6	37.2
보령시	34.1	38.9	39.2	36.9	38.3	33.5
아산시	52.9	41.1	40.9	43.4	44.3	39.1
논산시	34.6	33.2	36.9	35.1	32.3	39.2
계룡시	13.3	19.7	24.5	20.9	21.5	24.9
당진시	38.3	41.9	45.0	44.4	43.0	42.3
금산군	44.1	27.9	26.7	21.7	26.7	28.6
부여군	30.3	39.2	38.6	34.1	40.8	33.4
서천군	32.2	38.0	39.7	45.3	37.6	36.1
청양군	33.5	36.8	37.6	39.7	42.4	28.9
홍성군	40.8	40.5	38.7	33.2	34.8	31.0
예산군	30.5	33.4	33.0	34.8	29.2	30.1
태안군	36.8	41.1	42.8	35.4	34.6	49.3

주) 2012 3/4분기, 2013~2017년 하반기 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원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재구성

## ■ 서산시 산업별 취업자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통해 본 서산시의 피보험 근로자수는 2018년 7월 현재 37,895명으로 전년 동월의 36,585명에 비해 3.5% 증가
- 산업별 피보험 근로자수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4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9%, 건설업 6.9%, 도매 및 소매업 4.9%, 운수 및 창고업 4.7%, 교육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업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피보험 근로자의 비중을 충남 평균과 비교해 보면 서산시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48.1%로 충남 평균 44.6%를 상회하고 있으며 운수 및 창고업이 4.7%로 충남 평균 3.5%를 상회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 부문에는 대부분 비슷하거나 충남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표 14〉 서산시의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단위: 명, %)

산업대분류	2017년 7월	2018년 7월		증감률
	근로자수	근로자수	구성비	
합계	36,585	37,895	100(100.0)	3.5
농업, 임업 및 어업	280	299	0.8(0.8)	6.4
광업	60	49	0.1(0.1)	-22.4
제조업	17,944	18,227	48.1(44.6)	1.6
전기, 가스, 증기 사업	182	184	0.5(1.5)	1.1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332	360	0.9(0.7)	7.8
건설업	2,395	2,609	6.9(6.6)	8.2
도매 및 소매업	1,818	1,860	4.9(5.6)	2.3
운수 및 창고업	1,829	1,792	4.7(3.5)	-2.1
숙박 및 음식점업	835	981	2.6(3.0)	14.9
정보통신업	99	101	0.3(0.6)	2.0
금융 및 보험업	839	837	2.2(2.0)	-0.2
부동산업	542	481	1.3(1.6)	-1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36	1,197	3.2(4.2)	5.1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업	1,142	1,303	3.4(3.6)	1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76	995	2.6(3.2)	12.0
교육 서비스업	1,223	1,366	3.6(3.6)	1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84	4,133	10.9(11.8)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9	136	0.4(0.9)	1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950	985	2.6(2.1)	3.6

주) 괄호 안은 충남 평균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에서 재구성

##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 2018년 7월 현재 서산시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690명으로 청년층 전체 피보험자 수 10,611명의 6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 연령층 평균 비율 48.1%를 14.9%p 상회하고 있는 것임
- 서산시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율에 있어서 제조업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2%), 도매 및 소매업(4.5%), 건설업(3.7%), 교육 서비스업(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1%), 운수 및 창고업(2.4%),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산시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전 연령층 평균보다 높은 산업분야로는 제조업이며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전 연령층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서산시의 산업별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8년 7월 기준)

(단위: 명, %)

산업대분류	전 연령	청년층(18-34세)
합계	37,895(100.0)	10,611(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99(0.8)	37(0.3)
광업	49(0.1)	2(0.0)
제조업	18,227(48.1)	6,690(63.0)
전기, 가스, 증기 사업	184(0.5)	45(0.4)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360(0.9)	47(0.4)
건설업	2,609(6.9)	389(3.7)
도매 및 소매업	1,860(4.9)	473(4.5)
운수 및 창고업	1,792(4.7)	252(2.4)
숙박 및 음식점업	981(2.6)	251(2.4)
정보통신업	101(0.3)	38(0.4)
금융 및 보험업	837(2.2)	156(1.5)
부동산업	481(1.3)	31(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97(3.2)	328(3.1)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업	1,303(3.4)	169(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95(2.6)	159(1.5)
교육 서비스업	1,366(3.6)	342(3.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33(10.9)	978(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6(0.4)	30(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985(2.6)	194(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에서 재구성

## 제3절 시사점

### ■ 청년인구 현황(18-34세 기준)

- 2017년 서산시의 전체인구는 170,402명이며 이 중 청년 인구는 33,799명으로 서산시의 청년 인구 비중은 19.8% 임
- 서산시 청년 인구 비중 19.8%는 전국의 22.3%, 충남의 20.6%보다 낮고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 이어 충청남도 내 4번째 순위임
- 서산시의 청년인구는 1998년 44,630명이었으며, 2000년 43,255명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33,799명까지 감소
- 서산시 청년인구의 감소는 서산시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필요성을 시사

### ■ 청년고용 현황(15-29세 기준)

- 서산시의 전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말 현재 각각 65.2%와 6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9.9%와 40.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서산시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 29.7%에서 2015년 27.9%로 큰 변동 없었으나 2016년 30.9%, 2017년 40.4%로 최근 2개년 간 상승 추세임
- 2017년 말 서산시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충남 평균 수준이며,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18-34세 기준)

- 청년층 전체 피보험자 수 자료를 근거로 살펴본 서산시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율에 있어서 제조업이 63.0%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2%), 도매 및 소매업(4.5%), 건설업(3.7%), 교육 서비스업(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1%), 운수 및 창고업(2.4%),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산시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전 연령층 평균보다 높은 산업분야로는 제조업이며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전 연령층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Ⅲ. 청년 일자리 사업 고찰

---

1. 충남의 청년 일자리정책
2. 타시도 · 시군 우수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 제1절 충남의 청년 일자리정책

### ■ 2018 충청남도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체계

#### ○ 1대 정책비전

- 청년 Go Young!, 50,000개 일자리 창출, 충청남도

#### ○ 2대 정책목표

- Go Young! 혁신 일자리
- Go Young! 맞춤 일자리

#### ○ 5대 정책과제 (이하 총 36개 단위사업)

##### 1)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10개 사업)

- 기존 5개, 신규 1개, '18년 신규 추진 사업 4개

##### 2) 혁신 취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3개 사업)

- 기존 3개

##### 3) 충남형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고용률 제고 (3개 사업)

- 기존 1, 신규 1개, 행안부 1개

##### 4) 고용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률 제고 (16개 사업)

- 기존 7개, 신규 2개, 18년 신규 추진 사업 7개

##### 5)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고용률 제고 (4개 사업)

- 기존 2개, 신규 1개, 18년 신규 추진 사업 1개

#### ※ 추후 검토 대상 청년고용정책 (총 7개 사업)

- 고졸 서비스 창업(MRO) 지원
- 청년 창업기업 거래소 운영
- 1인 소호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
- 스마트 시티 재정 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해외 인턴 및 취업 촉진 사업
- 직무연계 네트워크 구축
- 대학과 특성화고 취업담당자 일자리 위원회

# ■ 2018 충청남도 청년일자리정책 비전 체계

청년 Go Young! 50,000개 일자리 창출, 충청남도					
정비	<div> <div> Go Young! 혁신 일자리</div> <div> 충남형 사회경제적 통한 고용</div> <div> 고용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div> <div> Go Young! 맞춤 일자리</div> </div>				
정책목표					
정책제					
사업	<div> <div>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CEO500 프로젝트 사업 추진</li> <li>○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li> <li>○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li> <li>○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li> <li>○ 지역자원 활용 창업지원</li> <li>□ 해외 자유 관광객 유치 소셜 미디어 마케팅 창업 사업</li> <li>△ 충남형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li> <li>△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 사업</li> <li>△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센터</li> <li>△ 청년 창업프라자 조성</li> </ul> </div> </div>	<div> <div>혁신 취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대비, 충남 기능경기대회 개최</li> <li>○ 미래주도 직업능력 향상 직업훈련</li> <li>○ 충남형 청년 인턴 사업</li> </ul> </div> </div>	<div> <div>충남형 사회경제적 통한 고용</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경제적 청년 활동가 육성</li> <li>△ 사회경제적 청년도제 육성</li> <li>□ 사회경제적 청년 혁신 기업 육성</li> </ul> </div> </div>	<div> <div>고용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활성화</li> <li>○ 청년일자리허브 Y+ 센터 운영</li> <li>○ 일자리창출 기반 구축</li> <li>○ 청년 취업촉진 고용서비스 확대</li> <li>○ 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li> <li>○ 희망이음 프로젝트</li> <li>□ 충남 대졸청년 취업인식 조사</li> <li>□ 청년공간 청년놀이터 조성</li> <li>△ 충남 특성화고 도내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관 지원사업</li> <li>△ 찾아가는 청년 일자리 버스 운영</li> <li>○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급</li> <li>△ 충남 열혈 청년동장(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li> <li>△ 충남 청년 복지카드 지원 사업</li> <li>△ 지역 대학 충남 인재를 장학금 및 취업지원</li> <li>△ 청년 지역인재 청년 프로젝트</li> <li>△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li> </ul> </div> </div>	<div> <div>지역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고용</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li> <li>○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li> <li>□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위원회</li> <li>△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li> </ul> </div> </div>

※ ○ 기존 사업 / □ 실무위원회 신발굴 사업 / △는 '18.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을 의미함

## ■ 2018 충청남도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예산 계획

(단위: 백만원)

No.	정책과제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10개 사업)	9,508	7,651	6,101	6,601	29,861
	기존사업	6,571	1,411	1,411	1,411	10,804
	실무위원회 신발굴 사업	-	-	-	-	-
	'18.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2,937	6,240	4,690	5,190	19,057
2	혁신 취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3개 사업)	7,183	100	100	100	7,483
	기존사업	7,183	100	100	100	7,483
	실무위원회 신발굴 사업	-	-	-	-	-
	'18.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	-	-	-	-
3	충남형 사회적경제를 통한 고용률 제고 (3개 사업)	1,196	2,172	2,172	2,172	7,712
	기존사업	384	498	498	498	1,878
	실무위원회 신발굴 사업	-	50	50	50	150
	'18.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812	1,624	1,624	1,624	5,684
4	고용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률 제고 (16개 사업)	9,529	10,065	5,058	4,158	28,810
	기존사업	7,859	3,695	838	838	13,230
	실무위원회 신발굴 사업		2,100	1,000	100	3,200
	'18.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1,670	4,270	3,220	3,220	12,380
5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고용률 제고 (4개 사업)	6,347	6,629	6,898	7,194	27,068
	기존사업	2,754	2,999	3,268	3,564	12,585
	실무위원회 신발굴 사업	-	10	10	10	30
	'18.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3,593	3,620	3,620	3,620	14,453
예산 총 합계 (36개 사업)		33,763	26,617	20,329	20,225	100,934
기존 사업 합계		24,751	8,703	6,115	6,411	45,980
실무위원회 신발굴 사업 합계		-	2,160	1,060	160	3,380
'18.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합계		9,012	15,754	13,154	13,654	51,574

자료: 충청남도(일자리노동정책과),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요약본, 2018.08.

## 제2절 타 시도·시군 우수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

### ■ 청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고용노동부 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 등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보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공동 노력하고자 함
-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보조
- 유형별 사업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일련의 사업간 묶음
  - 일반사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의 유형으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 지원 예산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별 50억 한도
  - 일반사업: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별 가내시 금액의 30%이내

구 분	일반사업 지원 한도	가내시 금액
대전광역시	1,012백만원	3,374백만원
세종특별자치시	330백만원	1,100백만원
충청남도	1,269백만원	4,232백만원

자료: 대전고용노동청 공고 제2018-1호(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 ■ 우수 사례

유형	지역	사업구분	사업명	예산(천원)			주요내용
일반	전남/ 완도	교육훈련, 창업·창직	완도 수산물식품산업전문인력 6차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국고	지자체	총합	완도 지역 특산 수산물과 연계를 통한 수산물식품산업의 활성화 수산물식품자원의 가공/유통실무 전문 교육 후 수산물식품산업분야 취업연계 및 수산물식품개발 창업(직) 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수산물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171,000	19,000	190,000	
일반	전북	창업·창직	전북 지역 특화산업 분야 청년창업 육성사업	240,000	60,000	300,000	청년층 유출 심각 및 생계형 창업 기업 비중이 큰 전북지역 산업 배경에 따라 전북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맞는 경쟁력 있는 기술창업 육성 전북 특화산업 분야인 탄소, 농생명, 문화 및 이를 융합한 우수 사업 아이템 보유자 발굴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일반	충북/ 단양	교육훈련	단양군 휴양레저관광 로컬잡 프로젝트	115,850	11,585	127,435	휴양레저관광 인턴양성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단양시 의료, 요양시설 증가로 의료, 요양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직업교육 헬스코디네이터, 실버간강관리사, 힐링휴양캠핑지도사, 산인관광가이드, 레저안전지도사 등 교육 및 휴양레저관광 기관 및 산업 연계
일반	전북	기타 고용서비스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허브, 집영채린지	200,000	50,000	250,000	전북 도내 취업준비생(특성화고 및 대학졸업예정자, 졸업자) 대상으로 지역 대표기업 및 우수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유도를 위한 플랫폼 기반 마련 지역인재 공개채용 오디션 참여채린지 개최, 단계별 서버이별 방식의 취업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일반	경북/ 포항	교육훈련, 창업·창직	포항지역 여성의 '일가양득 행복가족' 프로젝트	90,000	10,000	100,000	구조조정 퇴직자들에 대한 기계인정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여성친화 업종 전환 유도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2018) 홈페이지, URL: <http://www.reis.or.kr/report/list.do>

##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행정안전부 사업)

-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전국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로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지자체 사업별로 39세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유형별 사업내용
  - 지역정착지원형: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 지원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 제공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민간취업연계형: 문화, 복지, 안전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취·창업 지원
- 민간취업연계형 130개, 지역정착지원형 108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36개 총 37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유형	지역	사업개수	합계(개)
민간취업연계형	강원	17	130
	경기	16	
	경남	4	
	경북	4	
	광주	1	
	대구	6	
	대전	8	
	부산	14	
	서울	11	
	세종	2	
	울산	5	
	인천	5	
	전남	3	
	전북	23	
	제주도	1	
	충남	7	
	충북	3	



유형	지역	사업개수	합계(개)
지역정착지원형	강원	1	108
	경기	27	
	경남	6	
	경북	4	
	광주	3	
	대구	8	
	대전	2	
	부산	16	
	서울	3	
	세종	1	
	울산	3	
	인천	3	
	전남	5	
	전북	7	
	제주도	1	
	충남	16	
	충북	2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강원	14	136
	경기	23	
	경남	13	
	경북	2	
	광주	4	
	대구	9	
	대전	6	
	부산	4	
	서울	3	
	세종	2	
	울산	6	
	인천	8	
	전남	23	
	전북	5	
	제주도	1	
	충남	7	
	충북	6	
총 개수			374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URL: [http://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_2/screen.do](http://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_2/screen.do)

## ■ 우수 사례

유형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민간취업 연계형	전북 완주	청년 보부상	지역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로컬푸드 이동 마켓 사업에 참여할 운영단체 1개소와 보부상 활동에 참여할 청년 5명 모집: 사업 운영 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부산 본청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해운대구와 연제구 2개동 시범 선정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들이 문화지원, 소외 대상 발굴 및 관리, 마을정보알림, 마을보안 등의 서비스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마을 보안관과 같은 역할
지역정착 지원형	충남 아산	마을디자인 청장년 활동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작가 대상 인건비, 작업 재료비 등 지원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마을 특산물 가공·유통, 마을 홍보관 운영 및 디자인 공동체 육성, 학교 방과 후 예체능 과목 등 지원
	대구 본청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대구시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디자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참여 기업은 채용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됨 사업 지원 인력에게는 채용연계형 직무 심화교육 및 디자인 멘토링 제공
창업투자생 태계조성형	인천 본청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moving call)사업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열악한 근거리 이동수단 문제 해결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산단 내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산단 곳곳에 ‘무빙 콜’ 차량 6대 배치 및 콜 시스템을 통한 요청의 경우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
	전남 곡성	청년창업 및 청년공방 공간 조성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관내·외 청년에게 창업교육 및 컨설팅, 점포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사업장 임대료 지원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개소당 총사업비의 90%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지원, 월 임대료 최대 100만원 기준 90%까지 지원

## IV. 서산시 청년 일자리 실태 조사

---

1. 설문지 개요
2. 분석결과



## 제1절 설문의 개요

### 1. 모집단

#### ■ 모집단은 서산시의 기업체 및 청년

- 모집단: 서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 서산시 소재 기업체
  - 연구일정과 비용을 감안하여 서산시 소재 기업은 제조업체로 한정

### 2. 표본수 및 조사방법

#### ■ 표본은 랜덤추출법 활용

#### ■ 설문조사는 1:1 대면조사로 실시

〈표 16〉 설문조사 표본수

	서산시 거주 청년	서산시 기업체
표본수	134명	110개

#### ○ 표본:

- 18~34세 서산시 청년 134명, 서산시 기업체 110개

#### ○ 표본추출:

- 청년 조사의 경우 랜덤추출법 활용
- 기업체 조사의 경우 리서치업체 전문 D/B 활용

####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리서치업체 전문조사원의 청년 및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대면조사로 진행

〈표 17〉 조사방법

조사 방법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

○ 설문조사 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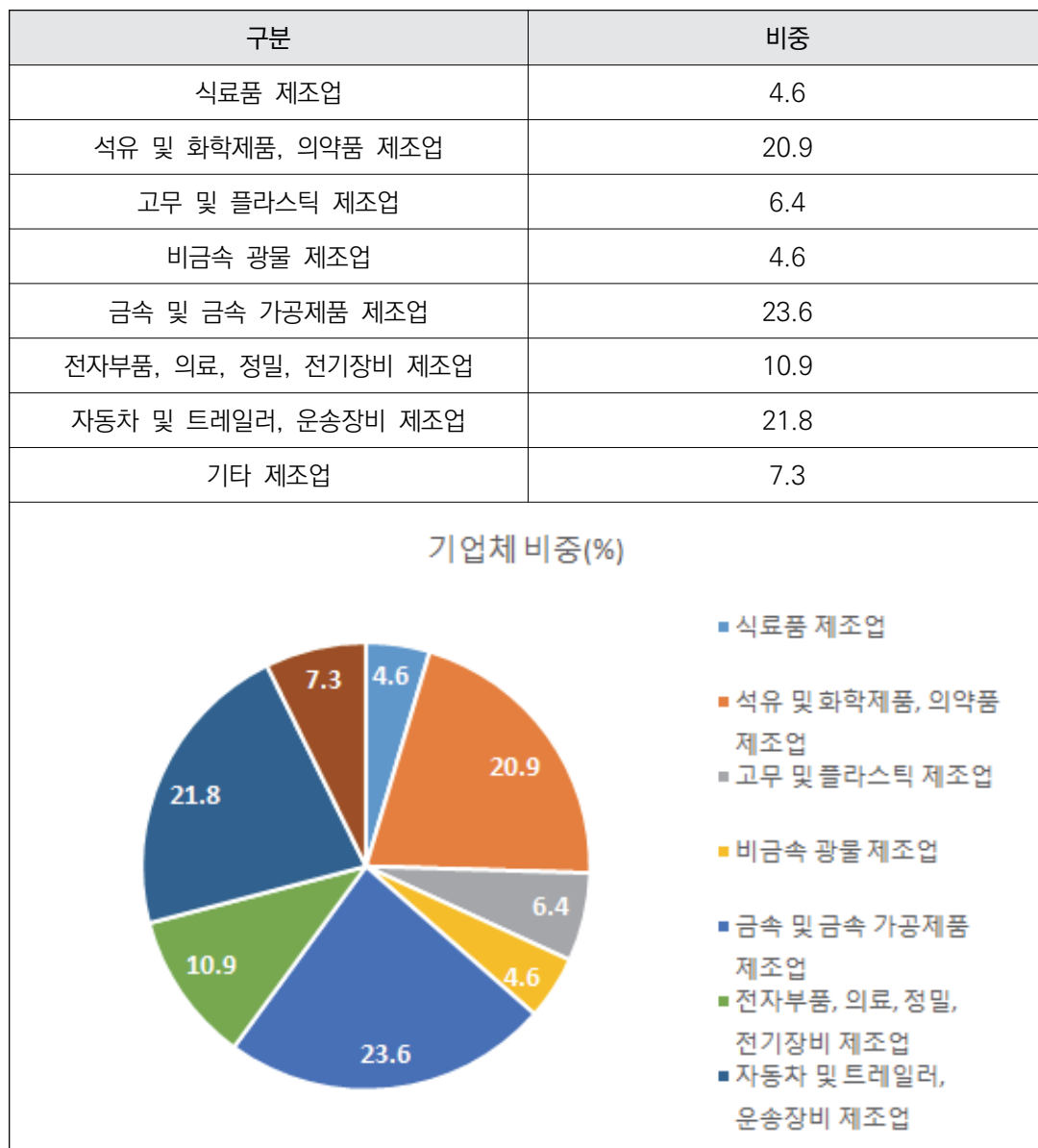
## 제2절 분석결과

### 1. 기업체 조사

#### ■ 기업체 기초통계

〈표 18〉 기업체 비중

(단위: %)



- 서산시 기업체 조사결과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23.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21.8%,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이 20.9%로 나타났다
- 서산시의 경우 석유화학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이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표 19〉 평균 근로자수

(단위: 명)

구분	인원
식료품 제조업	121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67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61
비금속 광물 제조업	152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76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4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148
기타 제조업	34

- 비금속 광물 제조업의 평균 근로자수는 15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이 148명, 식료품 제조업 121명으로 나타났다
-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조사규모가 작고, 특히 비금속 광물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조사비중이 낮아 정확한 산업별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표 20〉 정규직 비중

(단위: %)

구분	변수	평균
식료품 제조업	정규직	97.6
	비정규직	2.4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정규직	98.4
	비정규직	1.6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정규직	97.9
	비정규직	2.1
비금속 광물 제조업	정규직	93.2
	비정규직	6.8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정규직	97.2
	비정규직	2.8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정규직	92.5
	비정규직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정규직	97.4
	비정규직	2.6
기타 제조업	정규직	100.0
	비정규직	0.0
전 산업 평균	정규직	97.1
	비정규직	2.9

정규직 비중(%)

구분	정규직 (%)	비정규직 (%)
전산업평균	97.1	2.9
기타 제조업	10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97.4	2.6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92.5	7.5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7.2	2.8
비금속 광물 제조업	93.2	6.8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97.9	2.1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98.4	1.6
식료품 제조업	97.6	2.4

■ 정규직 ■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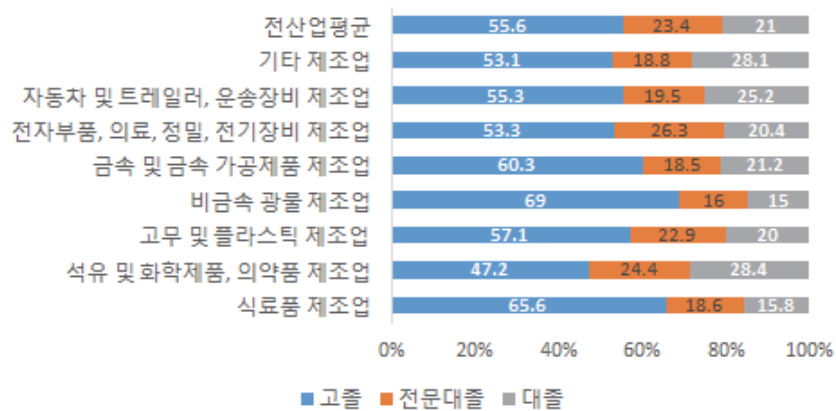
- 서산시의 경우 전 산업 평균 정규직 비중은 97.1%로 나타났고, 모든 산업에서 정규직 비중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산시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군으로 제조업으로 한정한다면, 정규직 비중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타 시군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표 21〉 학력별 비중

(단위: %)

구분	변수	비중
식료품 제조업	고졸	65.6
	전문대졸	18.6
	대졸	15.8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고졸	47.2
	전문대졸	24.4
	대졸	28.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고졸	57.1
	전문대졸	22.9
	대졸	20.0
비금속 광물 제조업	고졸	69.0
	전문대졸	16.0
	대졸	15.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고졸	60.3
	전문대졸	18.5
	대졸	21.2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고졸	53.3
	전문대졸	26.3
	대졸	2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고졸	55.3
	전문대졸	19.5
	대졸	25.2
기타 제조업	고졸	53.1
	전문대졸	18.8
	대졸	28.1
전 산업 평균	고졸	55.6
	전문대졸	23.4
	대졸	21.0

학력별 비중(%)



- 서산시의 경우 전 산업 평균 고졸 비중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 23.4%, 전문대졸 21.0% 순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 일자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인력비중이 높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 청년채용 현황 및 문제점

〈표 22〉 2년간 고용인원

(단위: 명)

구분	변수	인원
식료품 제조업	총인원	7
	정규직	7
	비정규직	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총인원	6
	정규직	5
	비정규직	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총인원	9
	정규직	9
	비정규직	0
비금속 광물 제조업	총인원	8
	정규직	8
	비정규직	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총인원	7
	정규직	7
	비정규직	0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총인원	8
	정규직	7
	비정규직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총인원	7
	정규직	7
	비정규직	0
기타 제조업	총인원	4
	정규직	4
	비정규직	0

- 최근 2년간 고용인원은 전 산업 평균 7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남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평균적으로 9명을 고용했지만 산업별로 큰 차이는 없었고, 고용규모가 크지는 않았음
-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기업체에서 고용규모를 줄인 것으로 여겨지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체의 고용의지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표 23〉 2년간 채용 청년 지역 비중

(단위: %)

구분	변수	비중
식료품 제조업	서산시	70.6
	서산 외 충남	19.6
	기타	9.8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서산시	84.2
	서산 외 충남	13.0
	기타	2.8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서산시	54.3
	서산 외 충남	35.9
	기타	9.9
비금속 광물 제조업	서산시	79.0
	서산 외 충남	13.8
	기타	7.2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서산시	69.1
	서산 외 충남	23.5
	기타	7.4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서산시	62.7
	서산 외 충남	30.2
	기타	7.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서산시	79.2
	서산 외 충남	15.1
	기타	5.7
기타 제조업	서산시	58.5
	서산 외 충남	15.8
	기타	25.7
전 산업 평균	서산시	72.2
	서산 외 충남	20.1
	기타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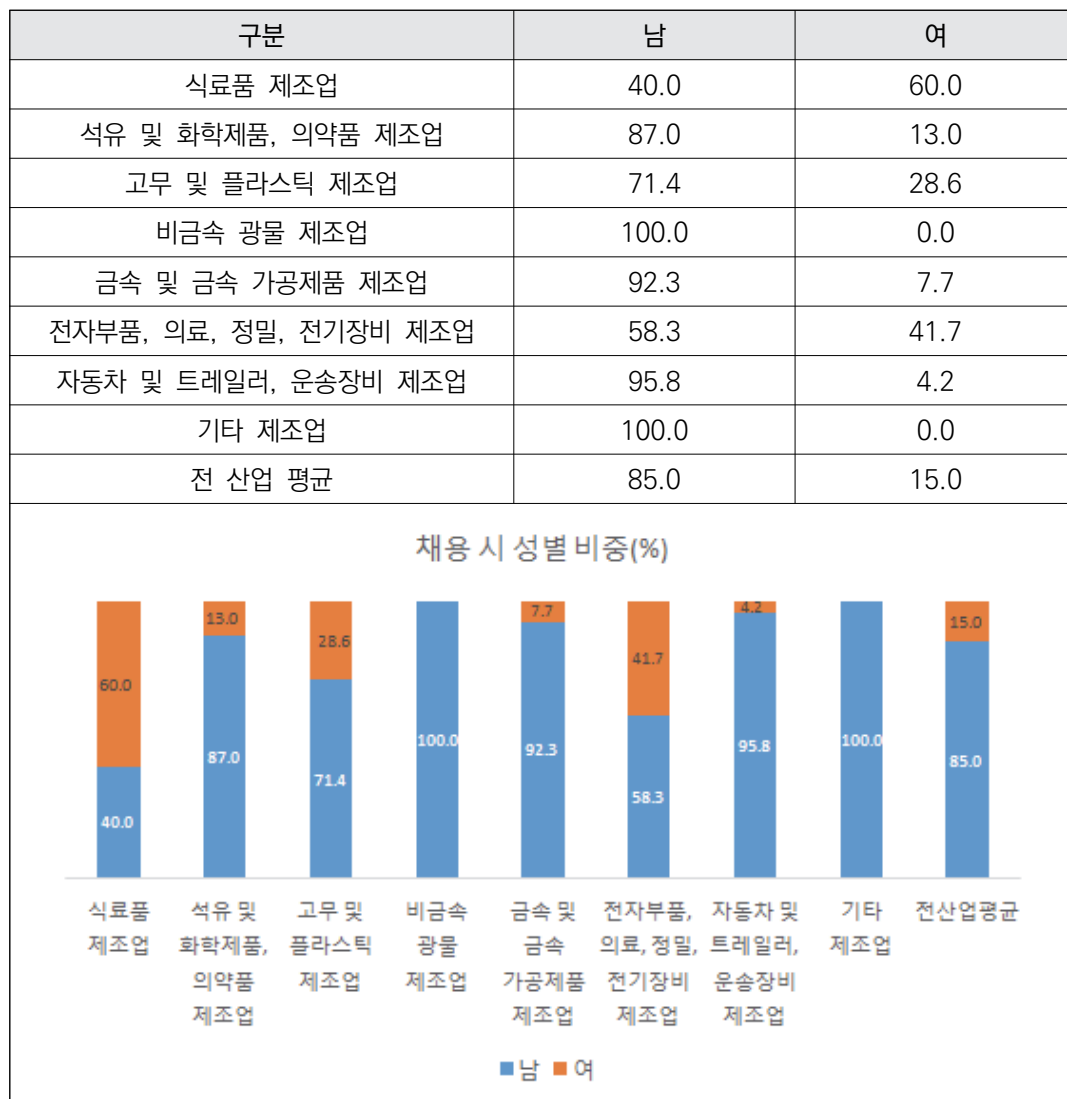
2년간 채용 청년 지역 비중(%)

구분	서산시	서산 외 충남	기타
전산업평균	72.2	20.1	7.7
기타 제조업	58.5	15.8	25.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79.2	15.1	5.7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62.7	30.2	7.2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9.1	23.5	7.4
비금속 광물 제조업	79.0	13.8	7.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54.3	35.9	9.9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84.2	13.0	2.8
식료품 제조업	70.6	19.6	9.8

- 전 산업 평균 서산지역 청년 비중은 72.2%로 나타났으며, 서산 제외 충남지역 비중 20.1%, 기타지역 7.7%로 나타남
- 서산시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 자립적인 고용시장으로 여겨짐
- 특히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제조업,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나,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여겨짐

〈표 24〉 채용 시 성별 비중

(단위: %)



- 전 산업 평균 남성 채용 비중이 85%로 여성의 15%다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여성의 채용비중이 60%로 더 높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남성채용 비중이 높는데 서산시 제조업의 경우 여성 친화형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표 25〉 성별 채용 이유

(단위: %)

구분	남 선택	여 선택
담당직무가 남자(또는 여자)에게 보다 적합해서	59.6	37.5
관련 전공자가 주로 남자(또는 여자)여서	12.8	43.8
응시자 대부분이 남자(또는 여자)여서	22.3	0.0
특별한 이유 없음	5.3	18.8

-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한 이유로는 담당직무가 남자에게 보다 적합해서라는 의견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을 더 많이 채용한 이유로는 관련 전공자가 주로 여성이어서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서산시의 경우 담당직무가 남성에 적합한 분야가 많아 상대적으로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 보임
- 따라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26〉 청년인력 수급 어려움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식료품 제조업	80.0	2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78.3	21.7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00.0	0.0
비금속 광물 제조업	100.0	0.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6.2	3.9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91.7	8.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87.5	12.5
기타 제조업	100.0	0.0
평균	90.0	10.0

- 전체 기업의 90.0%가 청년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힘든 직종일수록 청년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들의 구직난과는 별도로 중소기업들의 구인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때문으로 여겨짐
- 따라서 지역 청년들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표 27〉 청년고용 어려움 이유

(단위: %)

구분	비중
전공 불일치	2.0
지원자의 직무역량 부족	7.0
회사의 낮은 인지도	14.0
회사의 위치 및 정주여건 불편	25.0
청년들의 높은 기대수준(임금, 복지 등)	40.0
선발한 신입사원들의 잦은 이직	12.0

- 청년고용의 주된 어려움 이유는 청년들의 높은 기대수준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사의 위치 및 정부여건 불편이 25.0%로 다음 순이었음
- 또한 회사의 낮은 인지도와 잦은 이직도 청년고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음
- 아직까지 청년들과 기업체 간 임금수준에 대한 미스매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주여건의 경우 기업체보단 서산시의 정주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 청년채용 미스매칭

〈표 28〉 정규직 기준 초임연봉

(단위: 만원)

구분	변수	평균
식료품 제조업	사무직	2,500
	서비스/판매직	.
	생산직	2,3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사무직	2,785
	서비스/판매직	.
	생산직	2,51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사무직	2,604
	서비스/판매직	.
	생산직	2,311
비금속 광물 제조업	사무직	2,524
	서비스/판매직	.
	생산직	2,288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사무직	2,677
	서비스/판매직	2,600
	생산직	2,393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사무직	2,553
	서비스/판매직	2,665
	생산직	2,26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사무직	2,715
	서비스/판매직	.
	생산직	2,474
기타 제조업	사무직	2,575
	서비스/판매직	2,400
	생산직	2,338
평균	사무직	2,667
	서비스/판매직	2,583
	생산직	2,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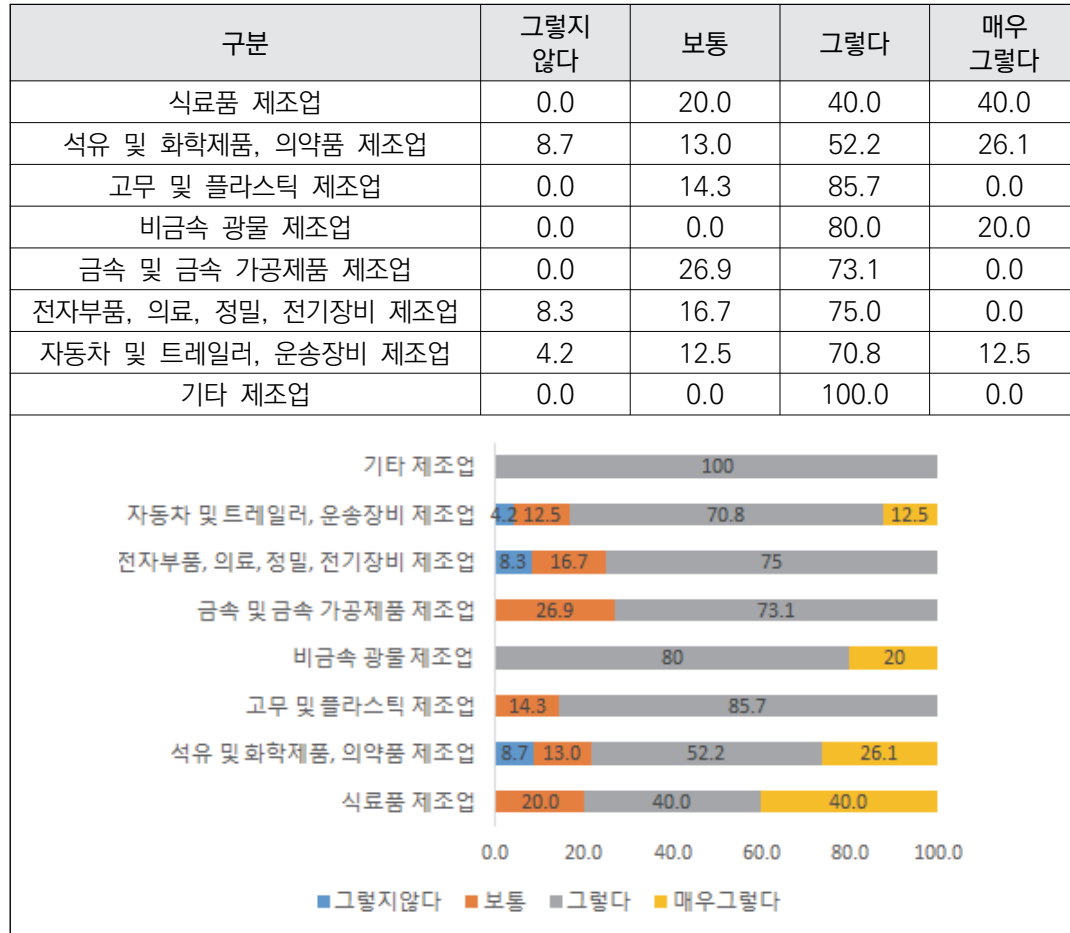
○ 서산시 기업체의 사무직 평균 초임연봉은 2,667만원, 서비스/판매직의 초임연봉은 2,583만원, 생산직의 초임연봉은 2,403만원으로 나타났음

- 사무직의 경우 석유화학이 2,78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부품기업이 2,715만원으로 다음 순이었음

○ 대부분 사무직의 평균 초임연봉이 서비스/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청년들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음

〈표 29〉 현재 초임수준에서 청년채용의 어려움

(단위: %)



- 전체 기업체의 80.9%가 현재의 초임수준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인기 직종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따라서 이들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0〉 채용 시 선호하는 학력

(단위: %)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상관없음
식료품 제조업	20.0	20.0	0.0	6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4.4	39.1	30.4	26.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4.3	42.9	14.3	28.6
비금속 광물 제조업	20.0	0.0	20.0	60.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9	11.5	30.8	53.9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16.7	50.0	25.0	8.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4.2	8.3	54.2	33.3
기타 제조업	12.5	25.0	37.5	25.0
평균	8.2	23.6	32.7	35.5

- 서산시 기업체의 경우 선호하는 학력으로는 상관없음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 32.7%, 전문대졸 23.6%, 고졸 8.2%로 나타났음
-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은 학력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는 전문대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는 대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 인재육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 선호하는 학력 청년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식료품 제조업	0.0	40.0	60.0	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8.7	26.1	60.9	4.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8.6	28.6	42.9	0.0
비금속 광물 제조업	20.0	20.0	40.0	20.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3.1	34.6	42.3	0.0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8.3	50.0	41.7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8.3	33.3	54.2	4.2
기타 제조업	25.0	12.5	50.0	12.5

- 선호하는 학력의 청년채용에 53.6%의 기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기업은 14.6%에 불과
- 기업체와 청년들 간 학력별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그 특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 청년채용 시 선호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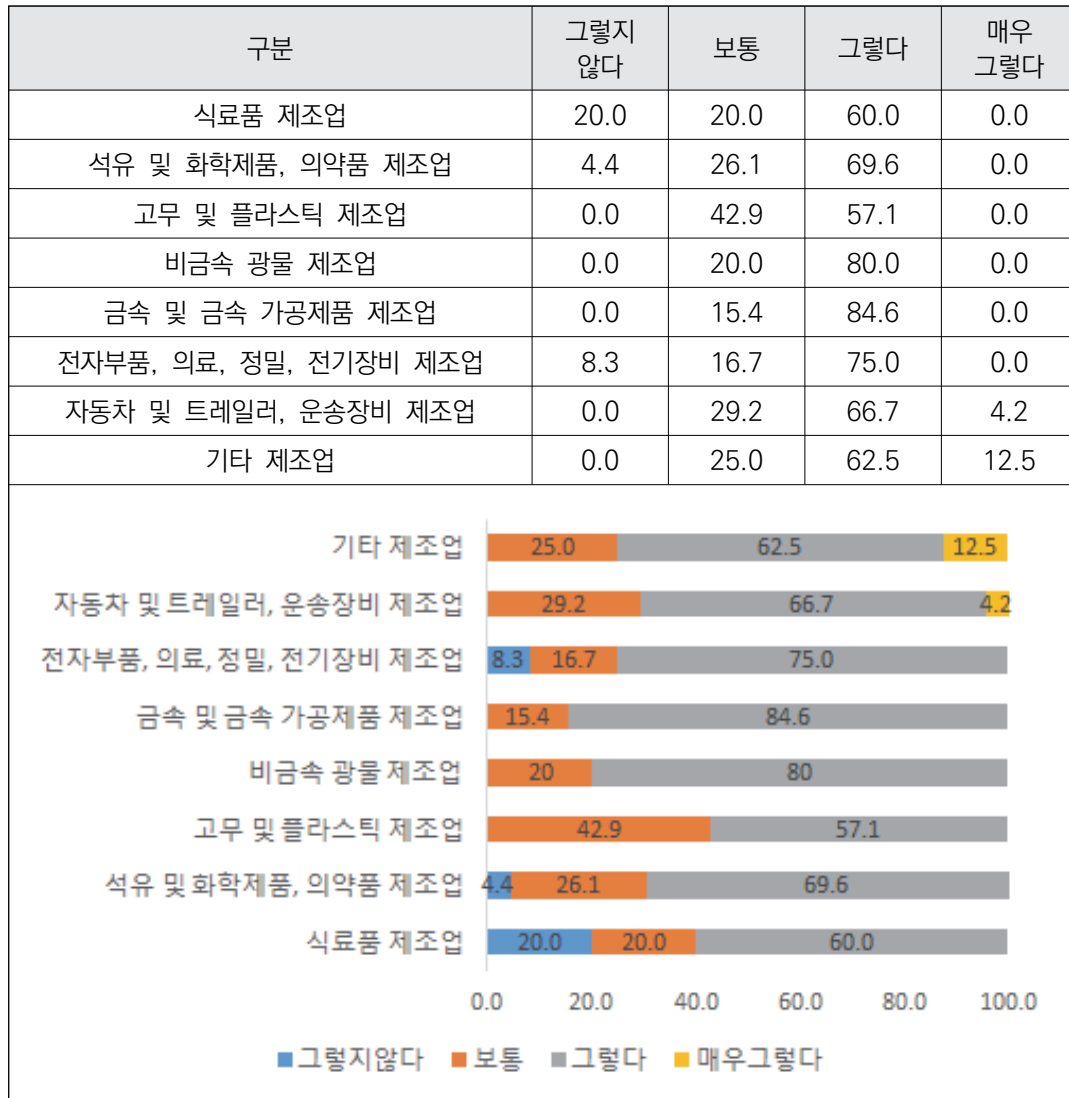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인문 여학 계열	사회 계열	법정 계열	경상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약 계열
식료품 제조업	0.0	40.0	0.0	40.0	20.0	0.0	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0.0	0.0	0.0	8.7	52.2	34.8	4.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4.3	0.0	0.0	14.3	71.4	0.0	0.0
비금속 광물 제조업	20.0	0.0	0.0	20.0	60.0	0.0	0.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0.0	0.0	0.0	7.7	84.6	7.7	0.0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0.0	0.0	8.3	25.0	50.0	8.3	8.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4.2	79.2	16.7	0.0
기타 제조업	0.0	0.0	0.0	0.0	87.5	12.5	0.0

- 서산시 기업체의 경우 68.2%가 공학계열의 전공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경상계열 순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의 주력 산업군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분야이기 때문에 공학계열 전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짐. 다만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는 사회계열, 경상계열을 더 선호하였음

〈표 33〉 선호하는 전공 청년채용의 어려움

(단위: %)



- 서산시 기업체의 경우 71.8%가 선호하는 전공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기업체와 청년들 간 전공별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선호하는 전공의 채용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표 34〉 일자리 창출사업 이수 시 채용 가산점 의향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식료품 제조업	80.0	2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82.6	17.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00.0	0.0
비금속 광물 제조업	100.0	0.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2.3	7.7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100.0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50.0	50.0
기타 제조업	75.0	25.0
전체 평균	80.1	19.9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수한 청년 채용 시 가산점 의향에 대해 80.1%의 기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학력별, 전공별 미스매칭을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이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임
- 특히 서산시의 경우 학력과 전공의 미스매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반드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표 35〉 연봉인상 의향

(단위: %)

구분	비중
있음	32.7
의향은 있지만 내규에 지급근거가 없어 불가능	52.7
없음	14.6

- 또한 청년이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봉을 더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32.7%의 기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6〉 청년 보유스펙의 영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값)

구분	평균
외국어 능력	2.93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	3.88
출신대학의 명성	3.18
전공분야(학과)	3.64
학점(성적)	3.45
직무경력(기업인턴·연수 등)	3.53

- 청년들의 보유스펙의 경우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이 채용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분야, 직무경력 순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의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산소재 기업과 연계한 직무관련 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37〉 직업능력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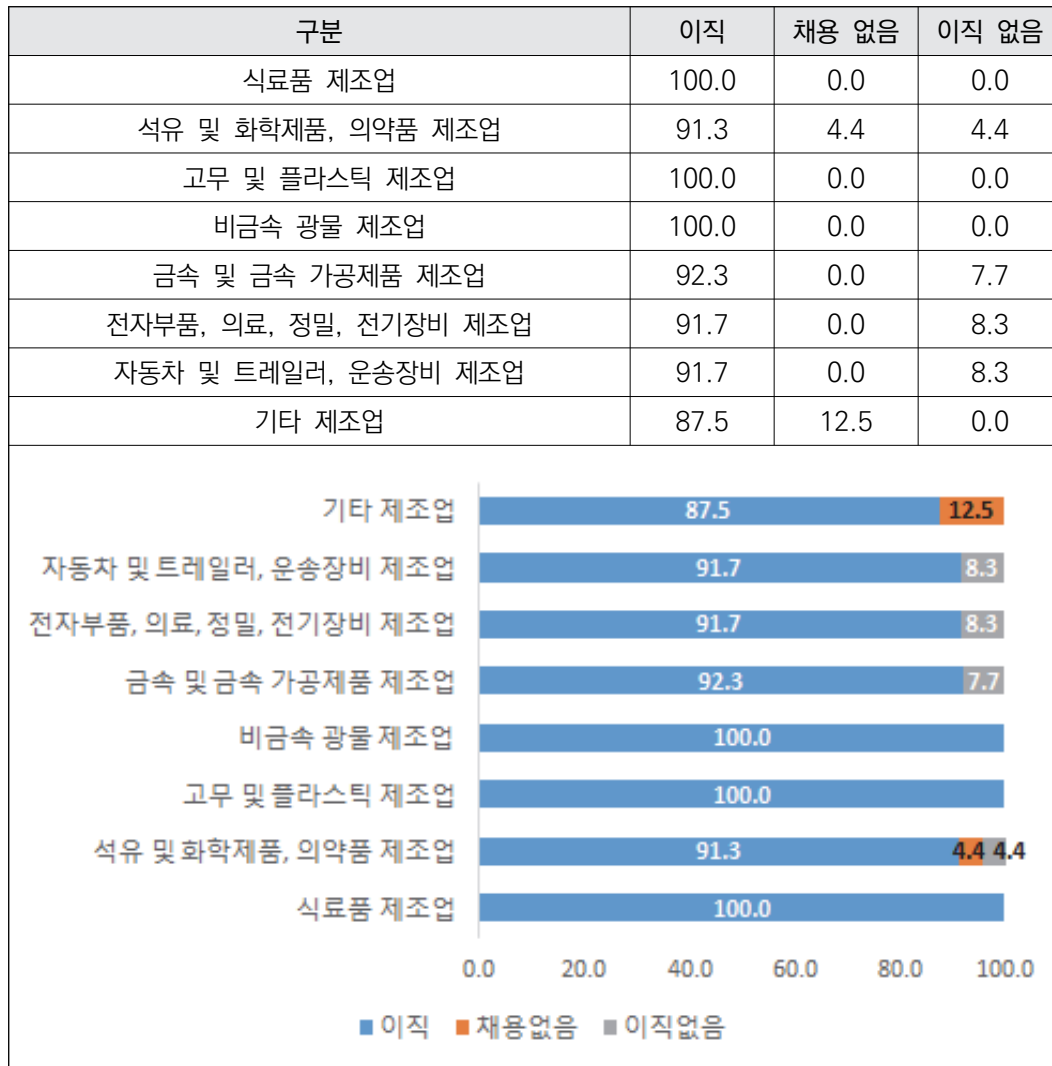
구분	보통	만족	매우만족
식료품 제조업	40.0	60.0	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52.2	39.1	8.7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42.9	57.1	0.0
비금속 광물 제조업	40.0	40.0	20.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4.6	65.4	0.0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25.0	75.0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45.8	50.0	4.2
기타 제조업	62.5	37.5	0.0
전체 평균	42.7	53.0	4.3

- 서산 소재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생의 직업능력에 57.3%의 기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만족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보통이 42.7%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기타제조업, 석유화학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비주력산업에 대한 직무교육(직업훈련) 확대는 물론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직무교육의 질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음

〈표 38〉 최근 2년간 신입직원 이직경험

(단위: %)



- 서산소재 기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 92.7%가 이직을 경험하였으며, 산업별로도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채용인원 중 평균 이직률은 34.0%로 10명을 뽑으면 2년 안에 3명 정도가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의 경우 지역인재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직방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39〉 주요 이직이유

(단위: %)

구분	비중
급여 및 복지 수준 불만	32.1
정주 및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	34.0
직무 강도 및 내용에 대한 불만	22.6
적성 및 전공 불일치	11.3

- 이직이유로는 정주 및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 및 복지 수준 불만이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의 경우 일자리 확대와 이직방지 등 직접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정책도 중요

〈표 40〉 직무교육 시 이직률 감소여부

(단위: %)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식료품 제조업	0.0	40.0	40.0	20.0
석유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조업	4.4	26.1	60.9	8.7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0.0	14.3	85.7	0.0
비금속 광물 제조업	0.0	60.0	40.0	0.0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9	26.9	69.2	0.0
전자부품, 의료, 정밀, 전기장비 제조업	0.0	16.7	83.3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제조업	8.3	37.5	45.8	8.3
기타 제조업	25.0	12.5	62.5	0.0

- 서산시 기업체의 66.4%가 지역기업과 연계해서 사전 직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직률이 줄 것이라고 응답

-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사전 직무교육은 서산시 청년들의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함

## ■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표 41〉 청년 고용문제 해결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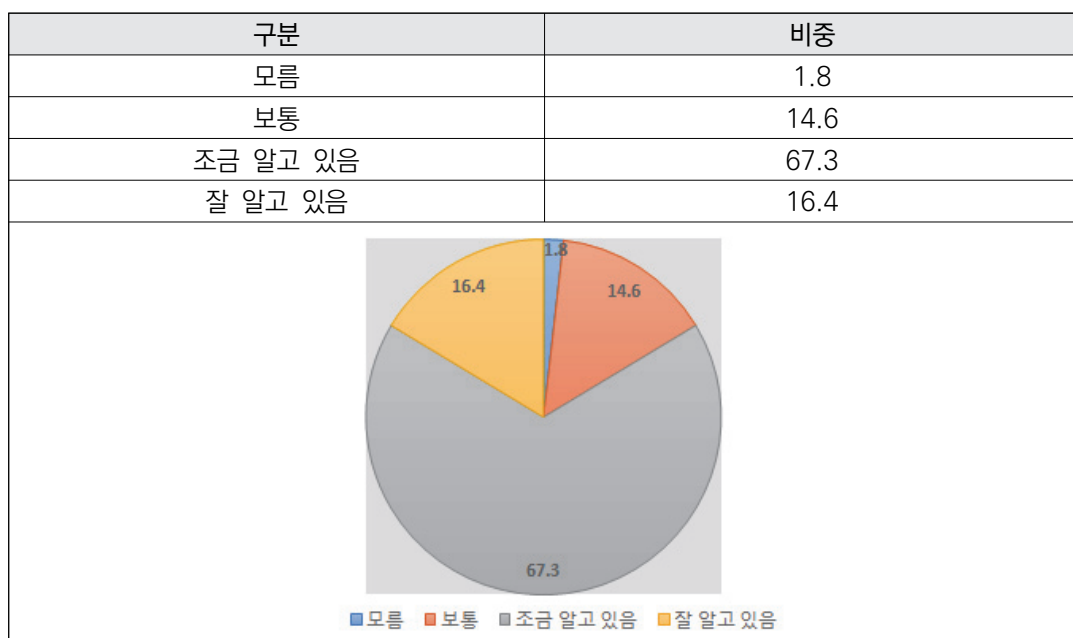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비중
기업	30.0
학교	3.6
정부 및 지자체	66.4

- 기업체의 66.4%가 청년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0%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
- 서산시의 경우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외에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

〈표 42〉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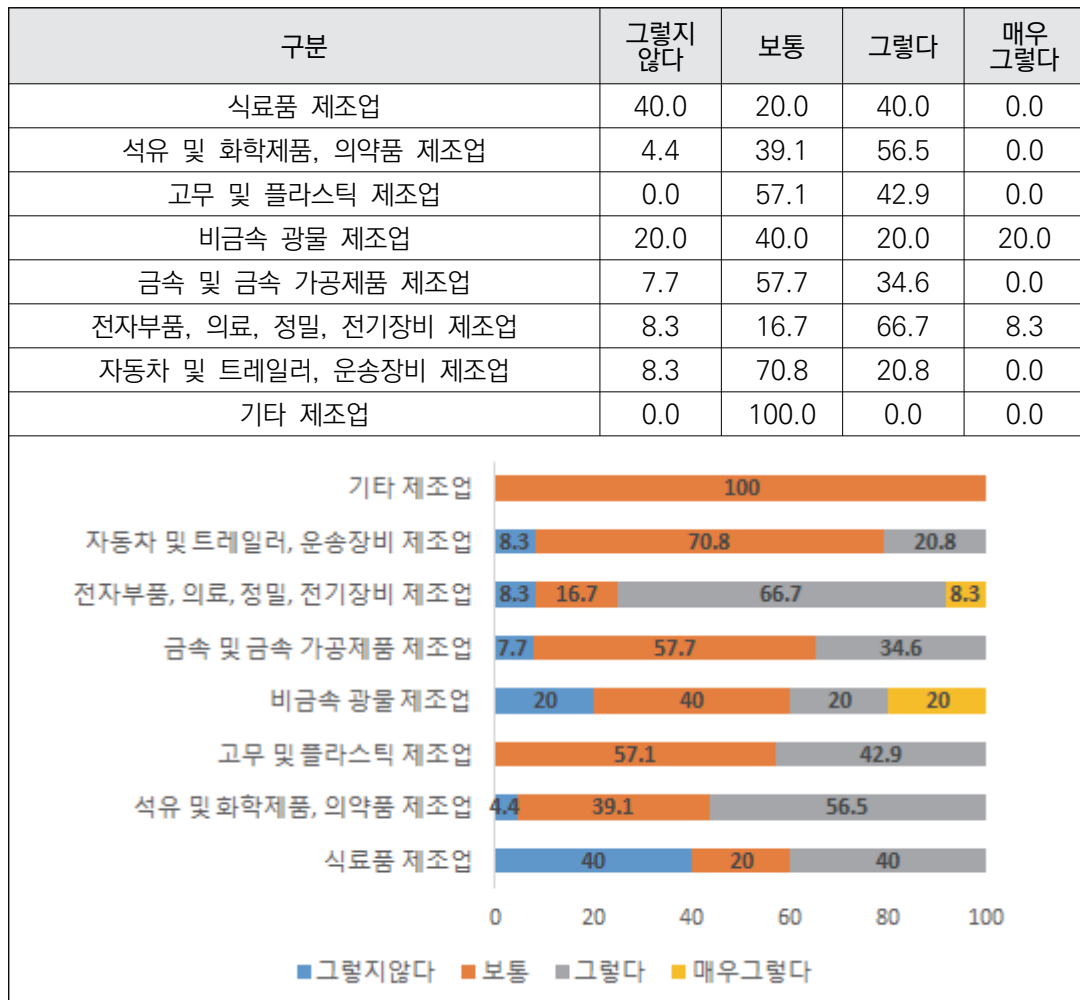
(단위: %)



- 기업체의 67.3%가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6.4%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조금 알고 있다는 비중이 높아, 이와 같은 사업이 실제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산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

〈표 43〉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충분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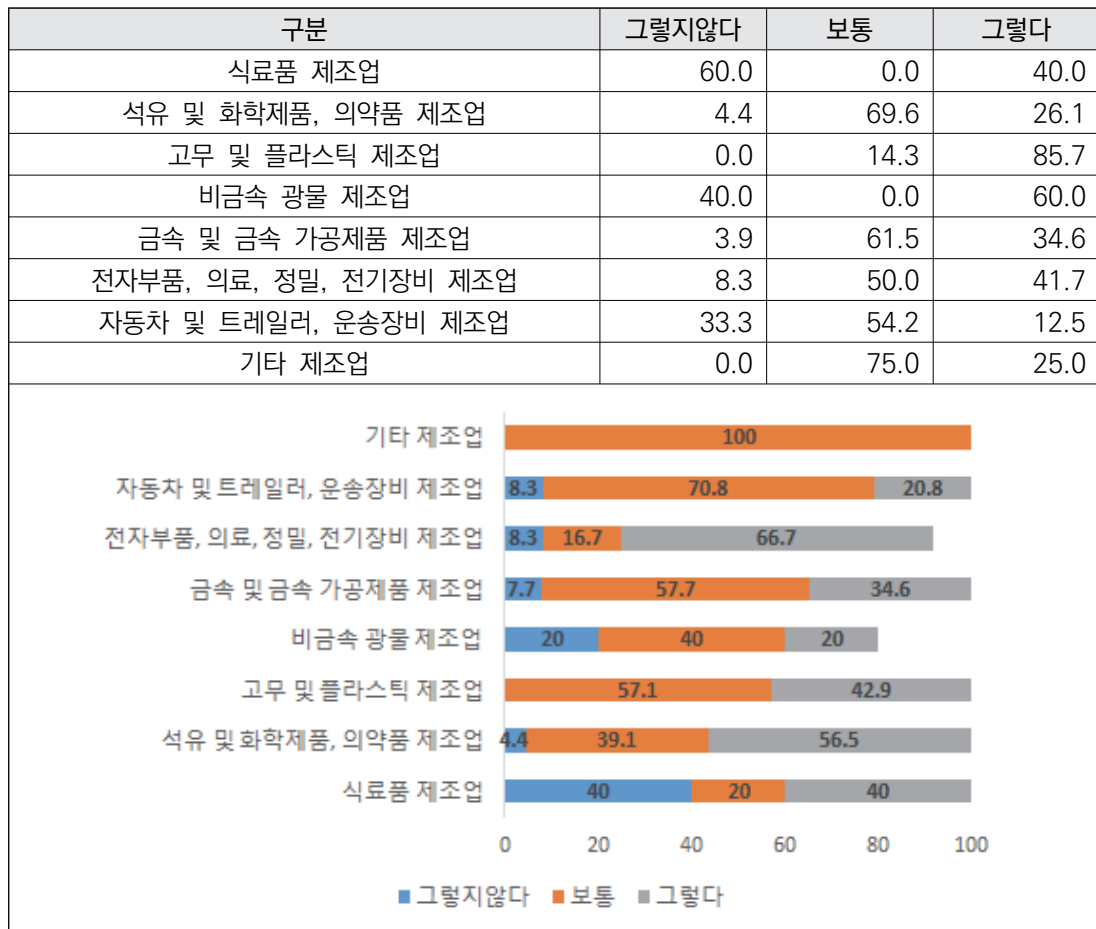


- 기업체의 37.3%가 서산시에서 청년들이 취업 전 직무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1.8%만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서산시의 청년 직무교육량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지역 기업체와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확대해야 함
- 특히 식료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조업에서 그렇지않다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산업별 직무교육 안배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표 44〉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적절성

(단위: %)



- 기업체의 32.7%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14.6%는 그렇지않다 라고 응답
-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직무교육수준은 아직까지 낮은 편으로 선진국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기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표 45〉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지역기업이 해야 할 일

(단위: %)

구분	비중
적정한 임금 지급	38.2
복리후생/문화생활 지원	24.6
정주여건 지원	18.2
지자체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	19.1

○ 청년들의 역내 취업을 위해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적정한 임금 지급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리후생/문화생활 지원이 24.6%로 다음 순이었음

○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수준과 복리후생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유인책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표 46〉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일

(단위: %)

구분	비중
임금, 복지 등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조정	45.5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34.6
자식의 역량 강화	4.6
지자체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	15.5

○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임금, 복지 등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34.6%로 나타났음

○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산시 차원에서 지역 기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

〈표 47〉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충남과 서산시가 해야 할 일

(단위: %)

구분	비중
도내 기업체 인식개선 사업 강화 (기업현장투어, 복지제도소개 등)	16.4
지역 청년 채용할당제 (신규 채용의 몇 %는 지역 청년 채용) 확대	18.6
청년일자리 팀 신설 및 확대	24.1
청년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강화	28.6
지역기업 연계 직무교육 등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12.3

- 청년들의 역내 취업을 위해 충남과 서산시가 해야 할 일은 청년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강화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일자리 팀 신설 및 확대가 24.1%로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 기업체의 경우 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청년의 역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표 48〉 서산시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단위: %)

구분	비중
광업/제조업	61.8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	3.6
건설업	0.9
도매 및 소매업	3.6
정보통신업(출판/영상/방송 등)	6.4
금융 및 보험업	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1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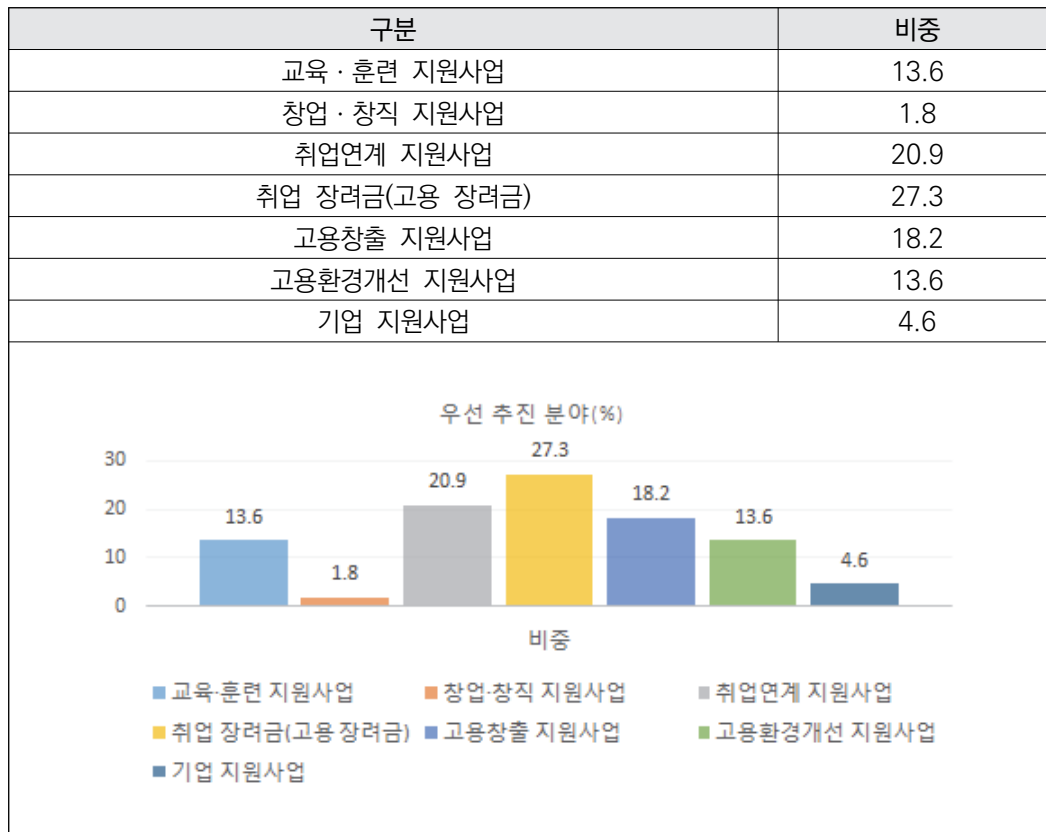
- 서산시에 필요한 일자리로는 광업/제조업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음

- 비록 본 조사가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산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시도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의견

〈표 4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단위: %)



- 정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로 취업 장려금 사업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연계 지원사업이 20.9%로 다음 순이었음
- 기존의 사업들이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초점이 있었다면, 기업체의 입장을 감안하여, 보다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표 5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업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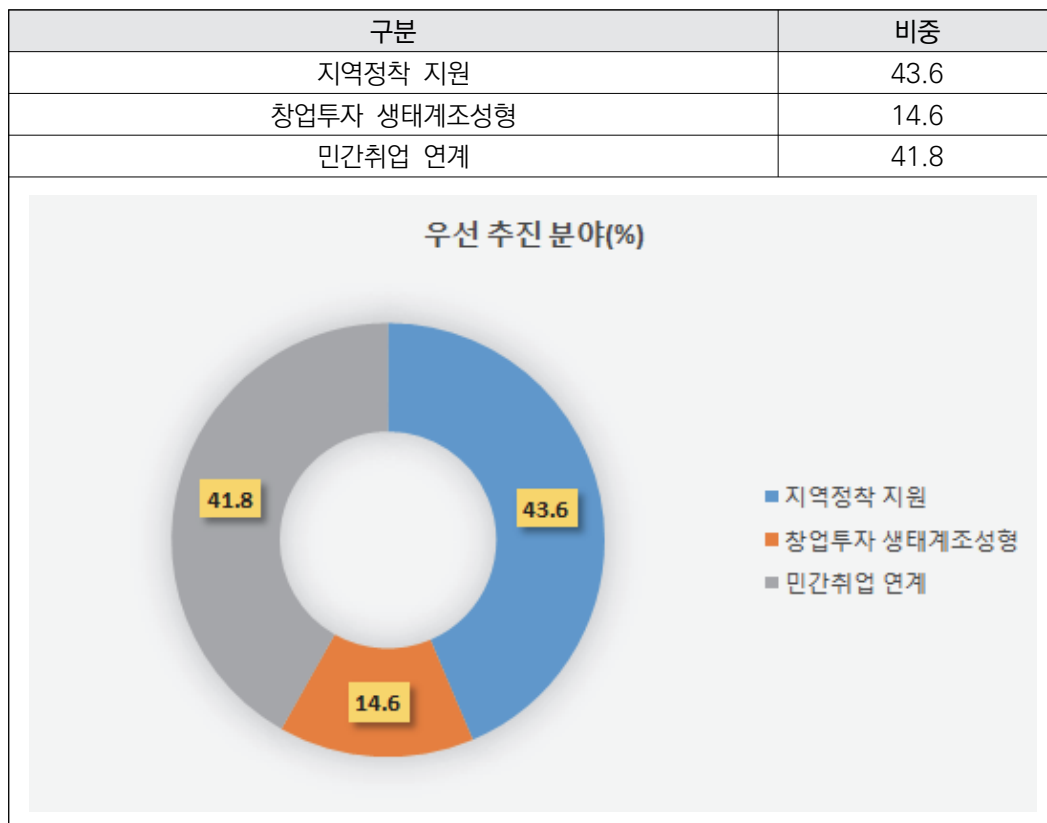
구분	비중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	60.9
바이오 식품 분야	19.1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11.8
영상방송 및 문화산업 분야	8.2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업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이오 식품 분야가 19.1%로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의 경우 자동차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동차 관련 인력양성에 보다 노력해야 함

〈표 51〉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단위: %)





-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서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역정착 지원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취업 연계가 41.8%로 나타났음
  - 지역정착지원은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창업투자생태계조성 사업은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이며, 민간취업연계 사업은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직접적인 일경험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서산시 기업체의 경우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을 우선추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음. 즉 기업에 직접 자금혜택을 주는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필요성

(단위: %)

구분	비중
보통	12.7
그렇다	63.6
매우 그렇다	23.6

-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서산시의 기업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87.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서산시의 산업생태계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

## 2. 청년 조사

### ■ 청년 기초통계

- 조사된 청년들의 평균 나이는 25세였고, 남자 67명, 여자 67명으로 총 134명이 조사되었음

〈표 53〉 학력 비중

(단위: %)

구분	비중
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졸	30.6
전문대 재학 또는 전문대졸	32.1
대학 재학 또는 대학졸 이상	37.3

- 대학 재학 이상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이하가 30.6%, 전문대졸 이하가 32.1%로 나타남

〈표 54〉 전공 비중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인문/어학	25.4	38.8	32.1
사회	9.0	13.4	11.2
법정	3.0	0.0	1.5
경상	17.9	14.9	16.4
교육	0.0	6.0	3.0
공학	28.4	14.9	21.6
자연	10.5	4.5	7.5
예체능	6.0	7.5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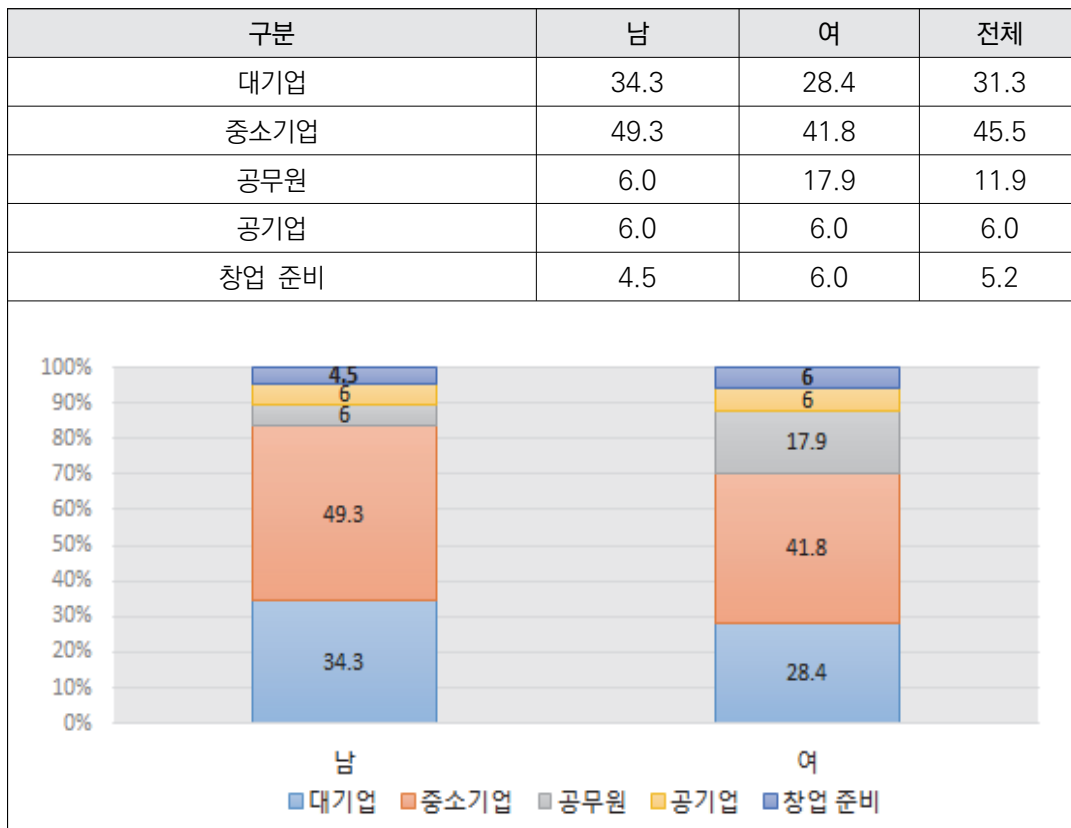
- 서산시 청년들의 전공은 인문/어학 비중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 21.6%, 경상 16.4%로 다음 순이었음
- 여성의 경우 인문/어학 비중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공학 비중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서산시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전공에 차이가 나고 여성의 경우 인문/어학의 비중이 높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 청년취업 현황 및 문제점

〈표 55〉 취업 선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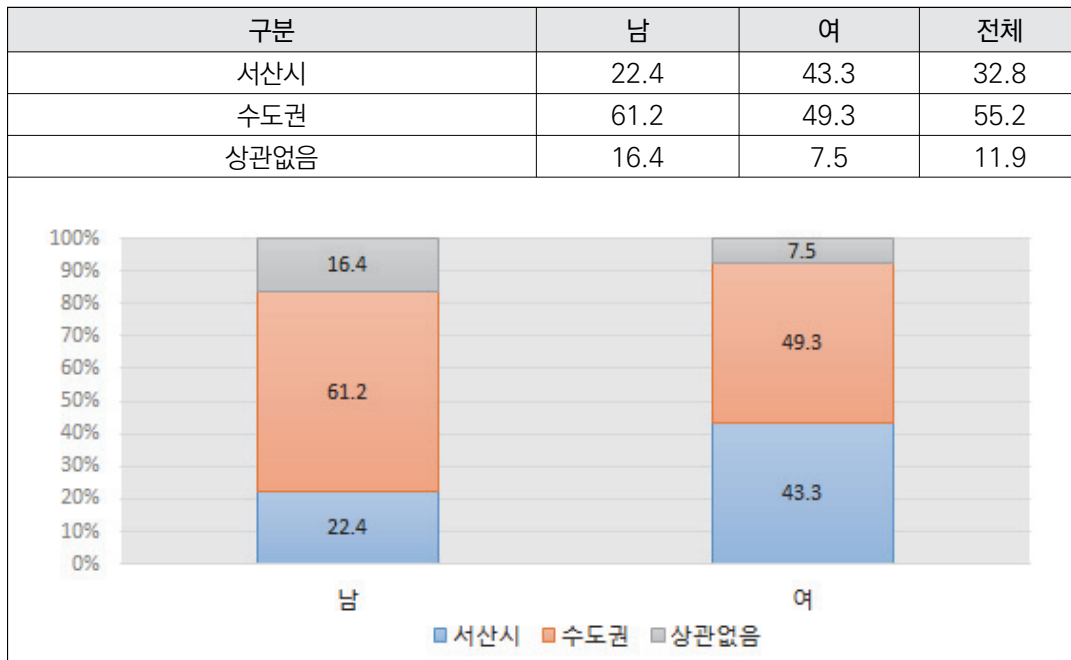
(단위: %)



- 청년들의 선호 기업은 중소기업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이 31.3%, 공무원이 11.9%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 청년들의 경우 중소기업 선호도가 비교적 높아, 지역기업과 연계된 올바른 직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표 56〉 취업 선호 지역

(단위: %)



- 문제는 서산시의 청년들의 55.2%가 수도권 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며, 남성의 경우 61.2%가 수도권 기업을 선호
- 서산시의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높으며, 지역기업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표 57〉 비정규직 취업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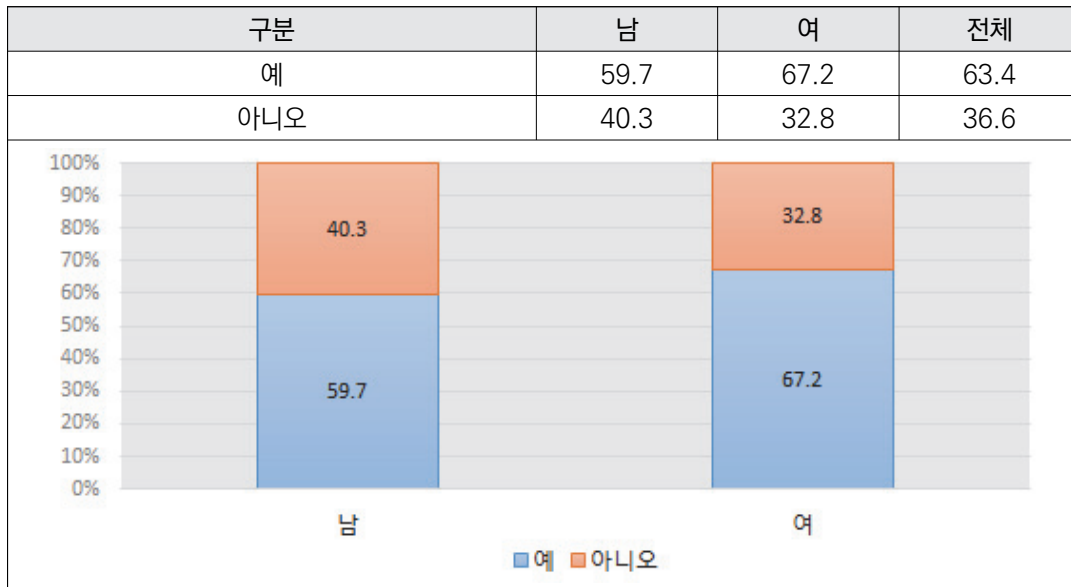
구분	남	여	전체
그렇지 않다	37.3	37.3	37.3
보통	14.9	19.4	17.2
그렇다	44.8	43.3	44.0
매우 그렇다	3.0	0.0	1.5

- 서산시 청년들의 44.0%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최근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절벽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도 이에 따라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표 58〉 서산시 기업체 취업의향

(단위: %)



- 서산시 청년들의 63.4%가 서산에서 현재 일자리가 난다면 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성의 경우 67.2%가 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이를 감안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지역기업의 홍보와 친밀도를 높이는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표 59〉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구분	비중
취업스펙, 출신학교, 전공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	21.2
중견기업의 월급은 수도권 일자리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15.3
수도권은 집값,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	28.2
연고지(집, 출신학교, 가족 등)가 원래 서산시이어서	10.6
서산에서 만든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11.8
서산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10.6
중소기업은 월급이 적지만 대기업 보다 일찍 퇴출되지 않으니까	2.4

-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이유로는 수도권은 집값,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의 스펙과 전공으로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가 21.2%로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 청년들의 정주여건과 환경을 개선한다면 서산시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스펙과 전공에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

〈표 60〉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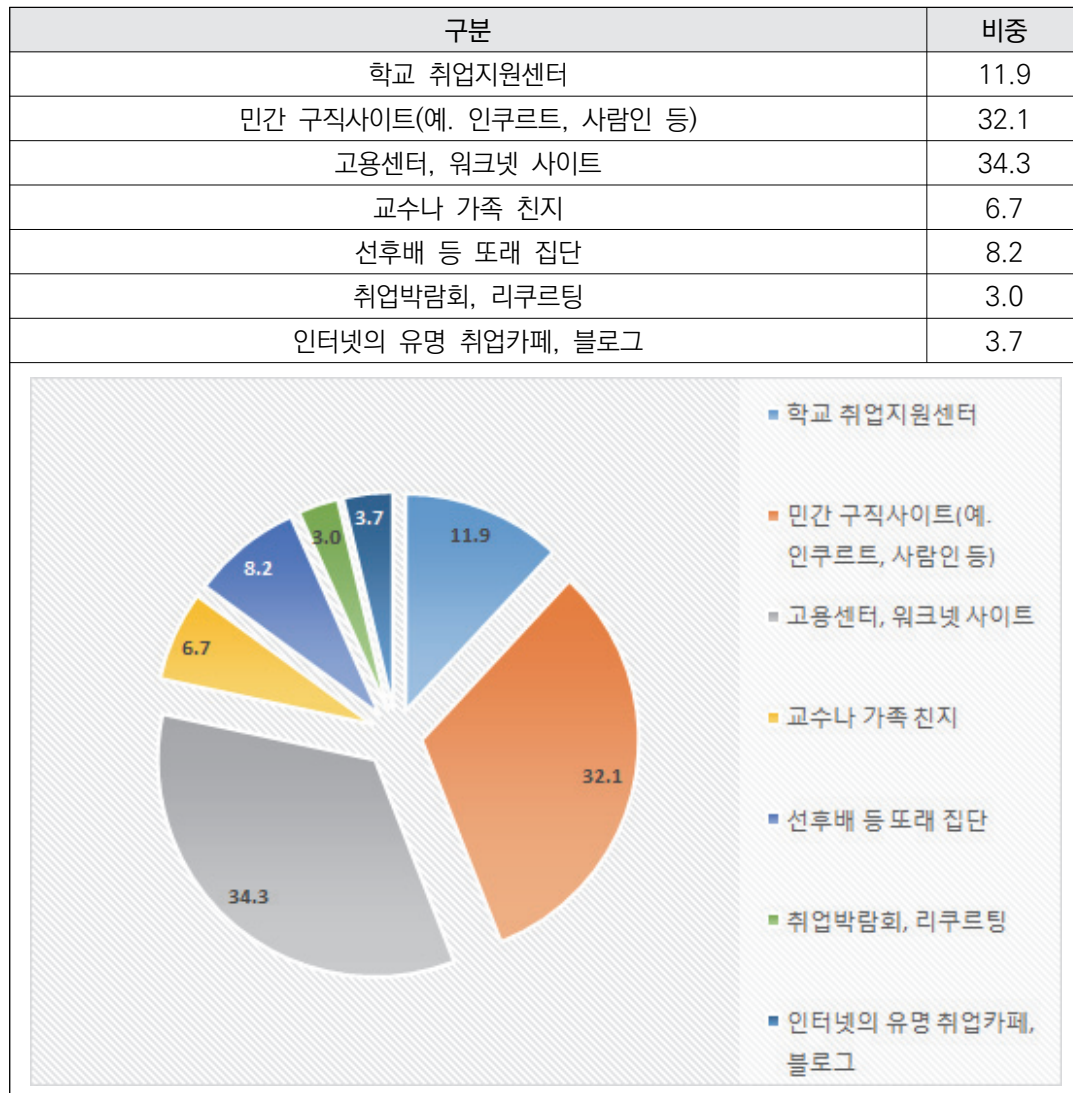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비중
지역에서 일하거나 정착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12.2
서산은 서비스업 보다 주로 제조업 일자리여서	32.7
대학에 오기 전에 연고지(집)가 원래 수도권 등 타지역이여서	4.1
서산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여가 문화혜택, 넓은 건물 등)	12.2
서산에 갈만한 기업체가 어딘지 잘 몰라서(예. 어떤 좋은 기업이 있는지)	4.1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수도권에 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8.2
서산 중소기업에 대해 막연한 거리낌이 들어서	2.0
급여가 낮아서	24.5

-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서산시의 일자리가 주로 제조업이라서 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급여가 낮아서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는 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제조업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표 61〉 일자리 정보 얻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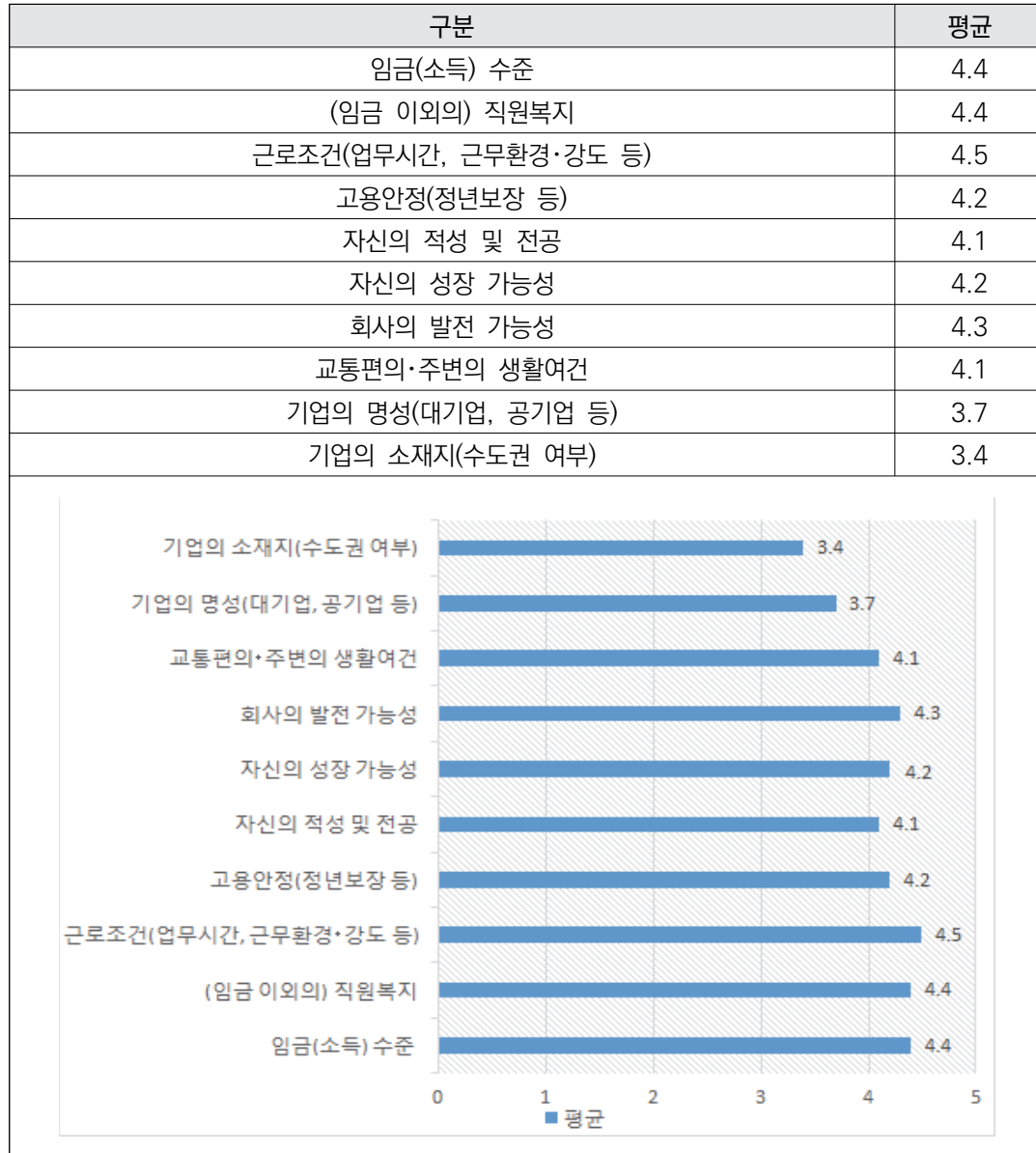
(단위: %)



- 청년들의 34.3%가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민간 구직사이트가 32.1%로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의 경우 취업박람회 등 오프라인의 구직정보가 부족한데, 서산시처럼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온라인 정보보다 취업박람회, 리쿠르팅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62〉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5점 척도 평균)



-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근로조건이었으며, 임금수준, 직원복지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 청년들을 서산시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서산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임금수준, 직원복지 등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 ■ 청년취업 미스매칭

〈표 63〉 받기 원하는 초임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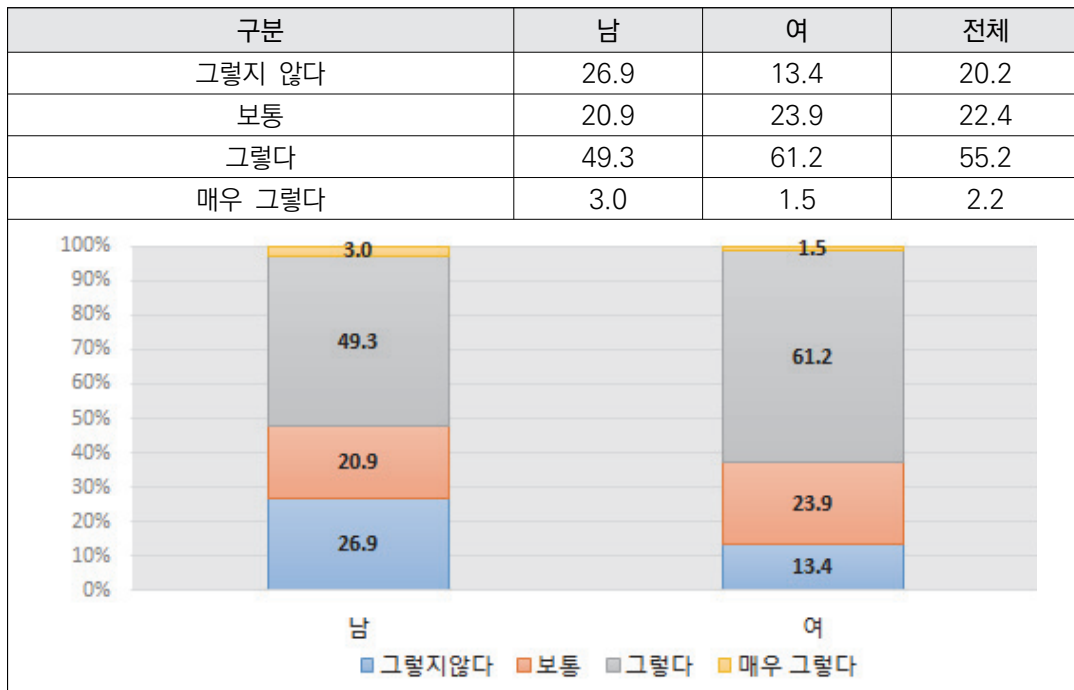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평균
사무직	3,083
서비스/판매직	3,059
생산직	2,984

- 청년들의 받고자 하는 초임연봉 수준은 사무직기준 3,08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의 경우 2,984만원으로 나타났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산시 기업체의 사무직 평균 초임연봉이 2,667만원, 서비스/판매직의 초임연봉이 2,583만원, 생산직의 초임연봉이 2,403만원인 것에 비하며 그 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64〉 본인의 학력보다 낮은 채용직 취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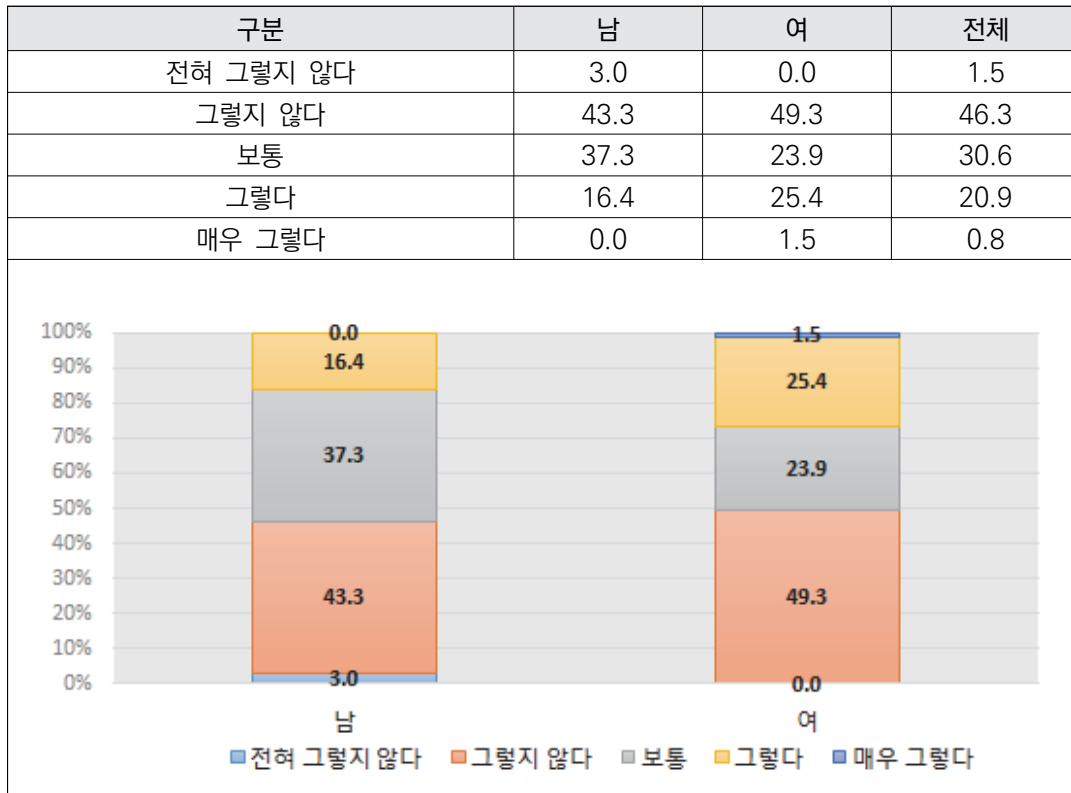
(단위: %)



- 본인의 학력보다 낮은 채용직에 취업할 의향에 55.2%의 청년들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음
-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중(61.2%)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산시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 여성의 학력과 전공에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여겨짐

〈표 65〉 전공 관련 일자리 충분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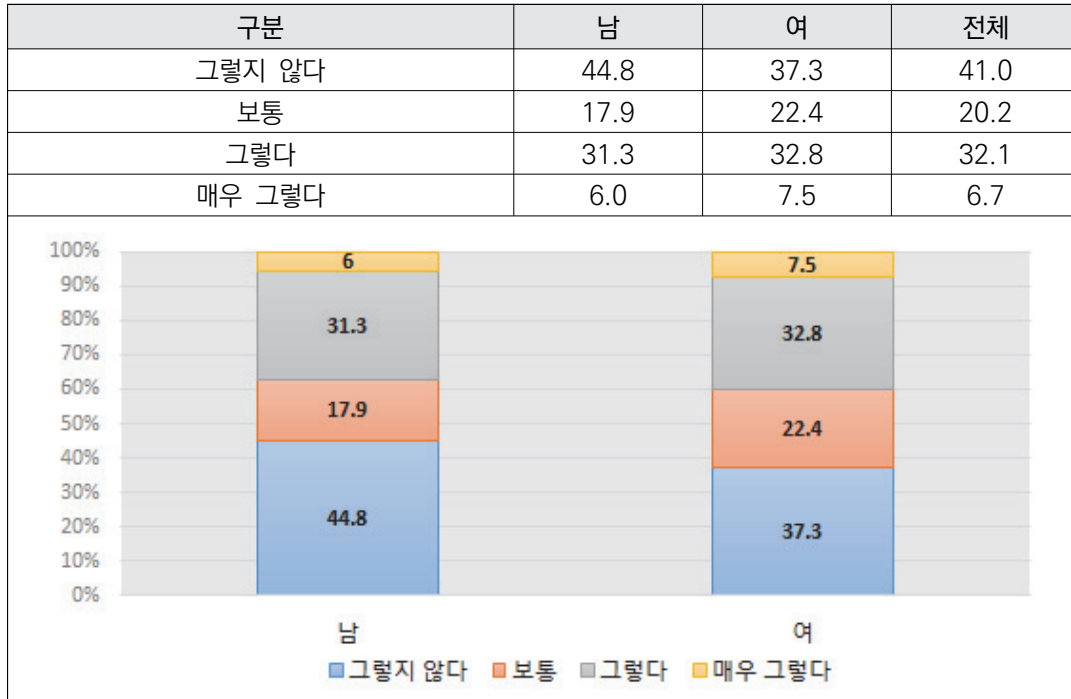
(단위: %)



- 서산시에 전공 관련 일자리가 충분한지에 47.8%의 청년들이 그렇지않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에서는 전공과 일자리 직무 간에 미스매칭이 있으며, 이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표 66〉 서산시 중소기업 취업의향

(단위: %)



- 청년들의 41.0%가 서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 라고 응답하였음
- 일자리 눈높이에 대한 미스매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

〈표 67〉 취업 시 스펙의 영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구분	평균
외국어 능력	4.2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	4.4
출신대학의 명성	4.2
전공분야(학과)	4.1
학점(성적)	4.2
직무경력(기업인턴·연수 등)	4.1

- 취업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스펙으로는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이 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점과 외국어 능력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음

- 청년들이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을 취업에 가장 필요한 스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직무교육 확대가 필요

〈표 68〉 본인 스펙의 수준

(단위: 5점 척도 평균)

구분	평균
외국어 능력	3.6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	3.8
출신대학의 명성	2.8
전공분야(학과)	3.3
학점(성적)	3.7
직무경력(기업인턴·연수 등)	3.4

- 본인 스펙의 수준에서 출신대학의 명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인턴 등 직무경로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나 서산시의 직무교육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69〉 직무교육 여부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예	74.6	79.1	77.0
아니오	25.4	20.9	23.0

- 서산시 청년들의 77.0%가 서산시나 학교를 통해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70〉 직무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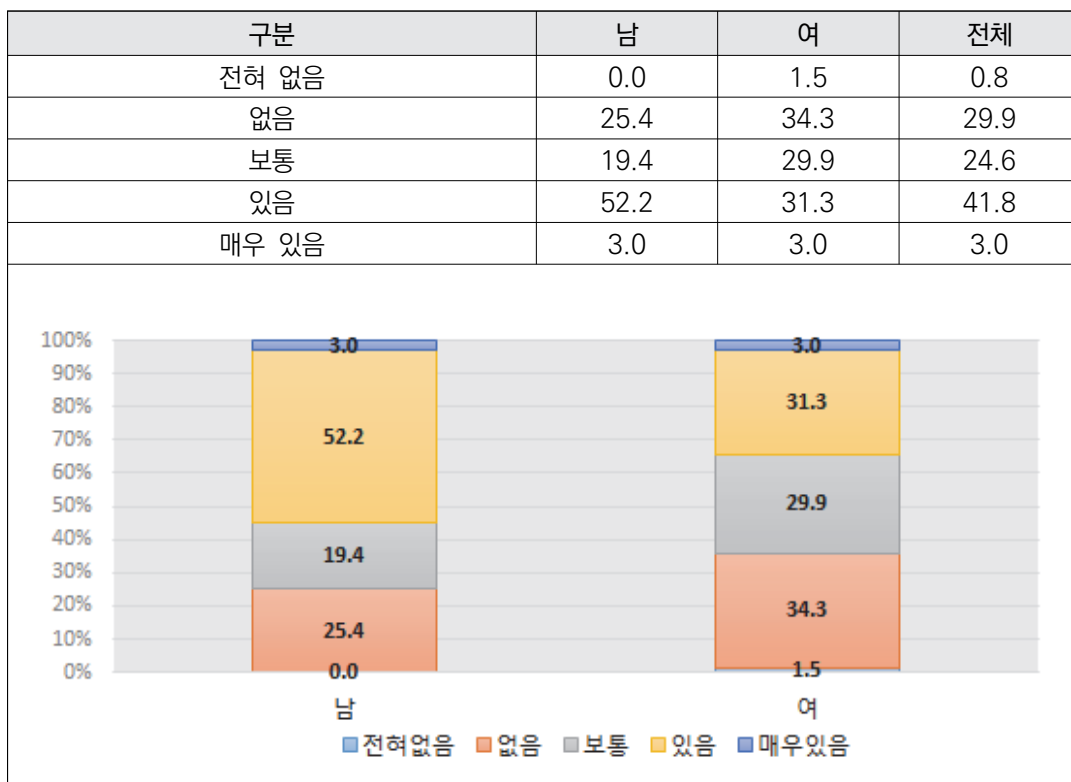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불만족	4.0	0.0	1.9
보통	12.0	18.9	15.5
만족	84.0	81.1	82.5

- 직무교육 만족도에 82.5%의 청년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산시의 경우 직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보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표 71〉 수도권 기업 이직 의향

(단위: %)



- 41.8%의 청년들이 서산시 취업한 이후에도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이직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 후에도 남성 취업자가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

〈표 72〉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이유

(단위: %)

구분	평균
수도권 기업의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21.5
정주 및 근로환경이 수도권이 더 좋아서	38.7
일의 강도나 내용이 수도권 기업이 더 좋을 것 같아서	33.3
내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어서	6.5

-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로는 정주 및 근로환경이 수도권이 더 좋아서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적인 면에서도 수도권 기업이 더 좋을 것 같아서가 33.3%로 다음 순
-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이직하려는 이유가 급여나 복지 수준보다는 정주여건이나 근로환경에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표 73〉 직무교육 시 이직률 감소여부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그렇지 않다	1.5	0.0	0.8
보통	17.9	23.9	20.9
그렇다	73.1	68.7	70.9
매우 그렇다	7.5	7.5	7.5

- 청년들의 70.9%가 지역기업과 연계해서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된다면 이직률이 줄 것이라고 응답
- 서산시의 경우 청년들의 이직의향이 높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사전 직무교육이 필요

## ■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표 74〉 청년 고용문제 해결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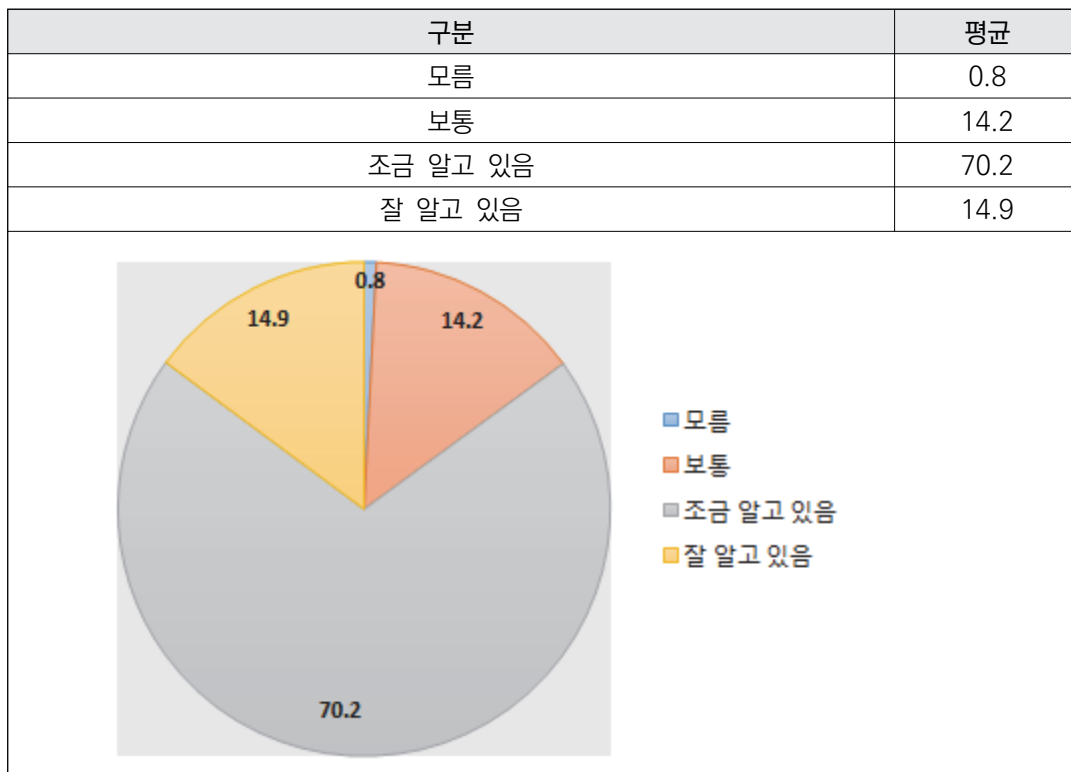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평균
기업	20.9
학교	3.7
정부 및 지자체	75.4

- 청년들의 75.4%가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표 75〉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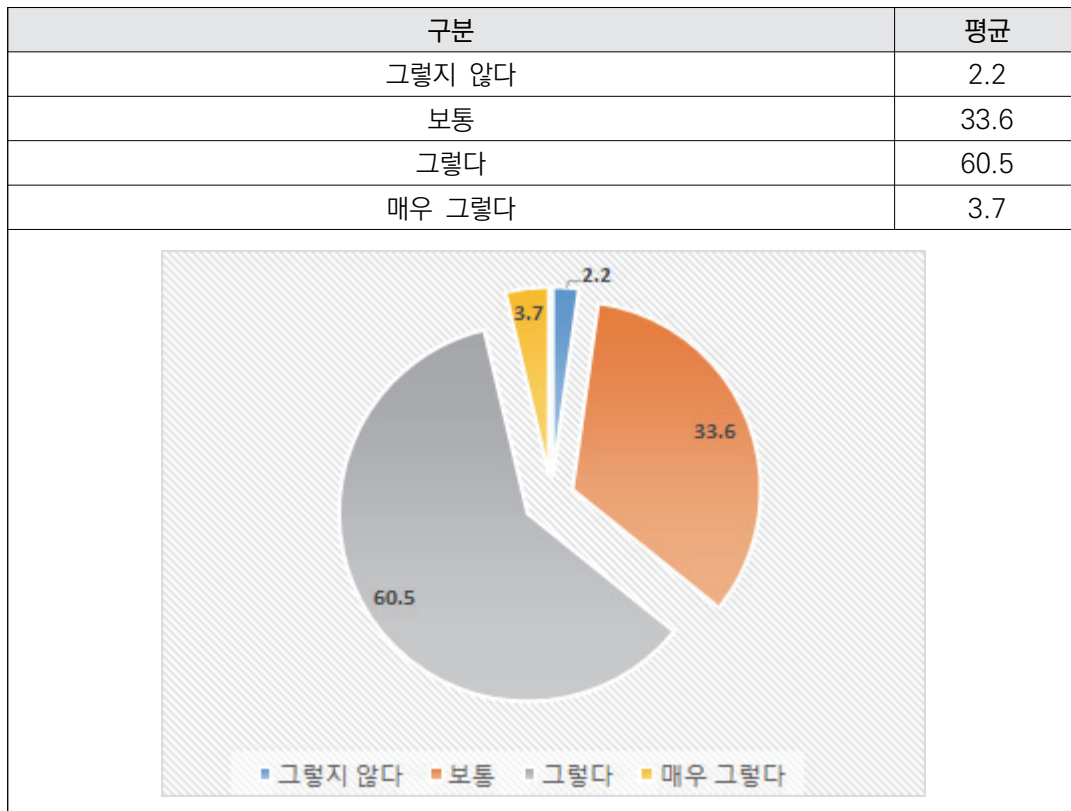


- 청년들의 70.2%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4.9%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아직까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져 홍보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표 76〉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충분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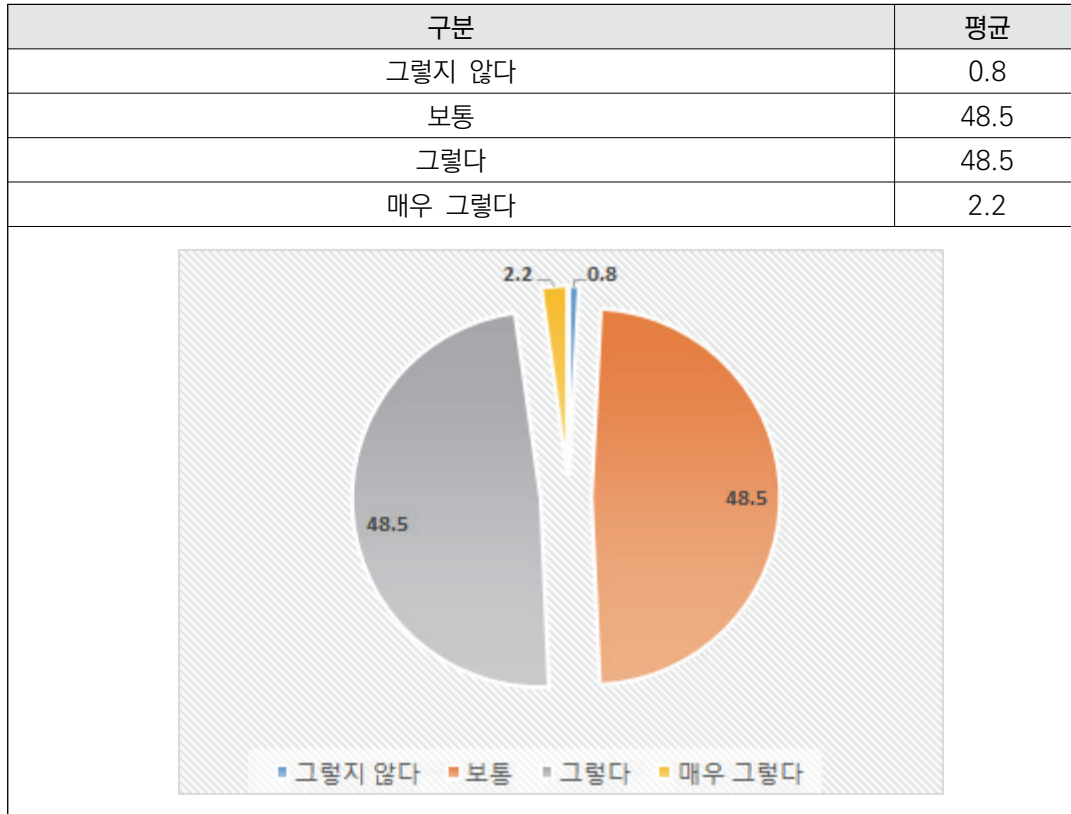


- 청년들의 64.2%가 서산에서 직무관련 교육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높아 직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기업과 청년들 간에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표 77〉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의 적절성

(단위: %)



-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의 직무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 50.7%의 청년들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48.5%로 높게 나타났음
- 청년 직무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된 올바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표 78〉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 참여의향

(단위: %)

구분	평균
그렇지 않다	6.7
보통	12.7
그렇다	76.9
매우 그렇다	3.7

- 청년들의 76.9%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서산시의 경우 청년들의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다면,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가능

〈표 79〉 서산시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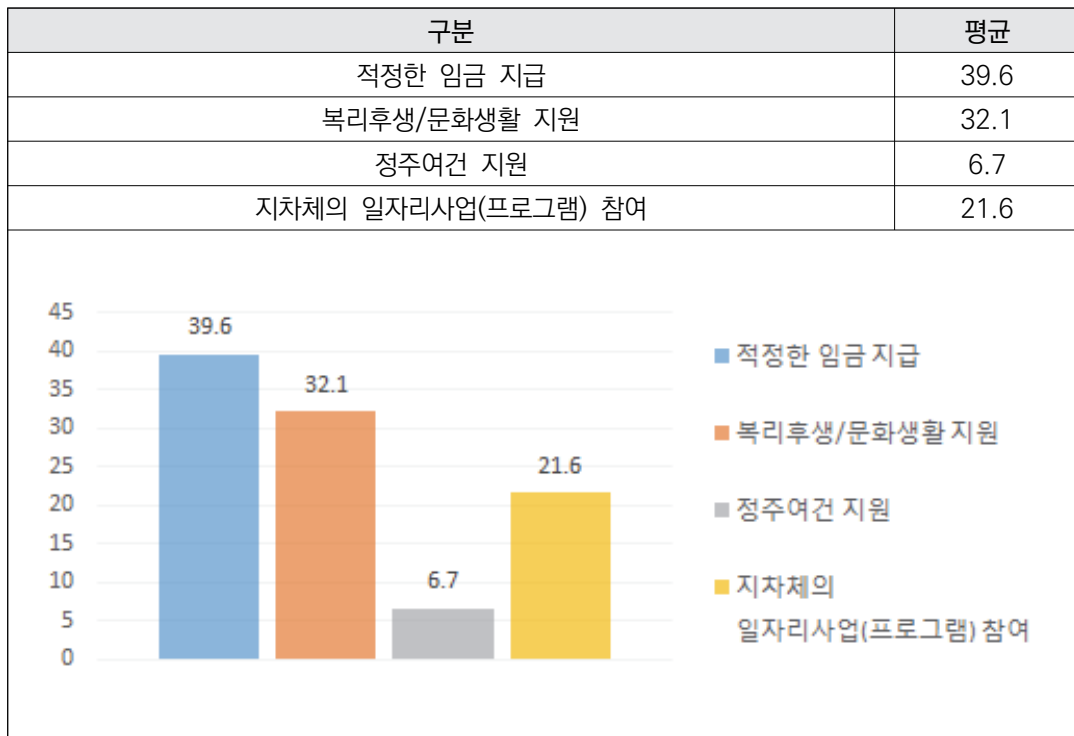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평균
스스로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76.9
이미 받았다	23.1

-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직무교육에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스스로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미 받았다가 23.1%로 나타났음

〈표 80〉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지역기업이 해야 할 일

(단위: %)



- 서산시의 청년들을 서산시의 기업에 취업시키고자 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로 적절한 임금 지급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리후생/문화생활 지원이 32.1%로 다음 순이었음
- 지역기업의 정부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복리후생/문화생활 지원확대도 필요
- 기업들도 적절한 임금 지급과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함

〈표 81〉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일

(단위: %)

구분	평균
임금, 복지 등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조정	36.6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27.6
자식의 역량 강화	10.5
지자체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	25.4

- 청년들이 해야 할 일로는 임금, 복지 등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27.6%로 다음 순이었음
-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

〈표 82〉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충남과 서산시가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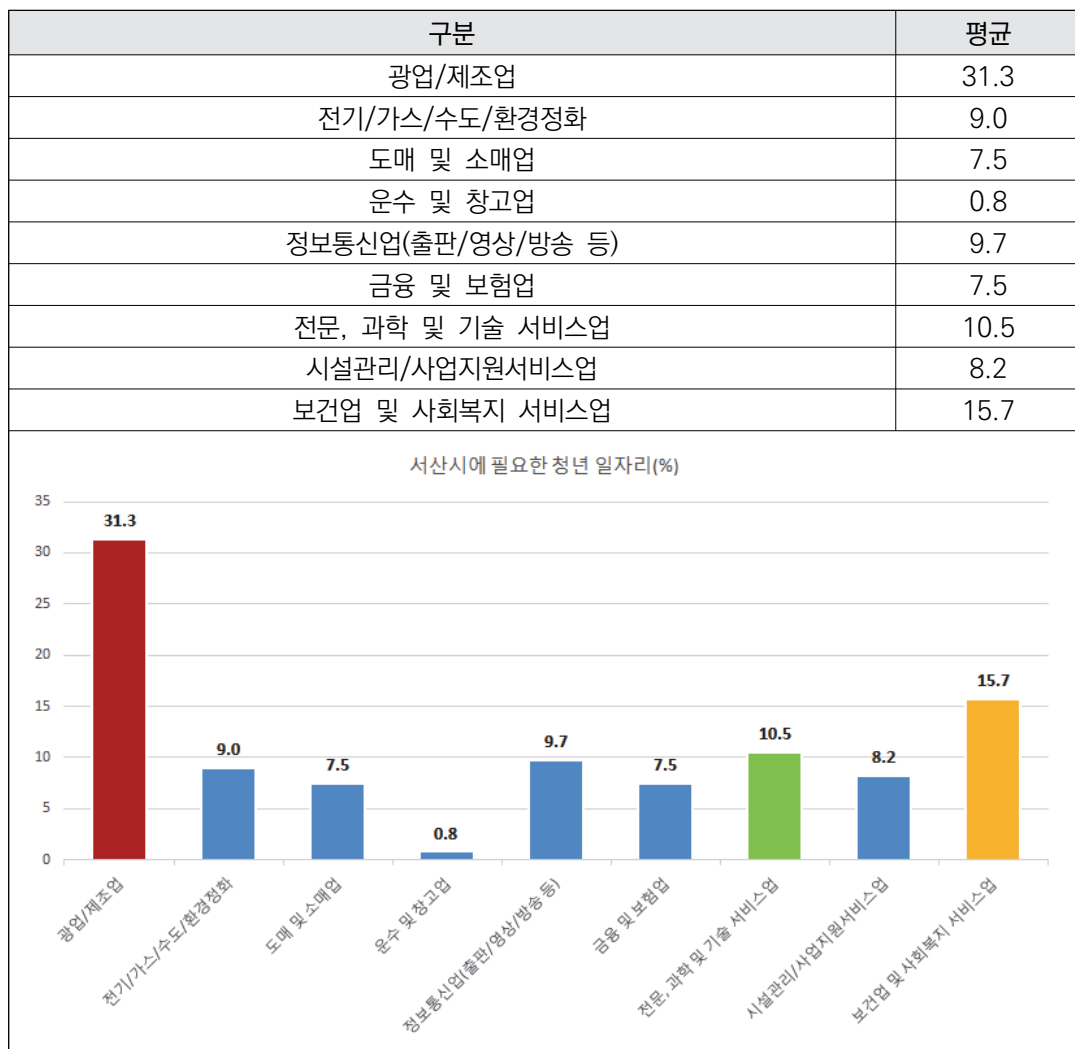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평균
도내 기업체 인식개선 사업 강화(기업현장투어, 복지제도소개 등)	14.2
지역 청년 채용할당제(신규 채용의 몇 %는 지역 청년 채용) 확대	19.8
청년일자리 팀 신설 및 확대	20.2
청년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강화	33.2
지역기업 연계 직무교육 등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12.7

- 충남과 서산시의 역할로는 청년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강화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일자리 팀 신설 및 확대, 지역 청년 채용할당제 확대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에서는 채용우수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

〈표 83〉 서산시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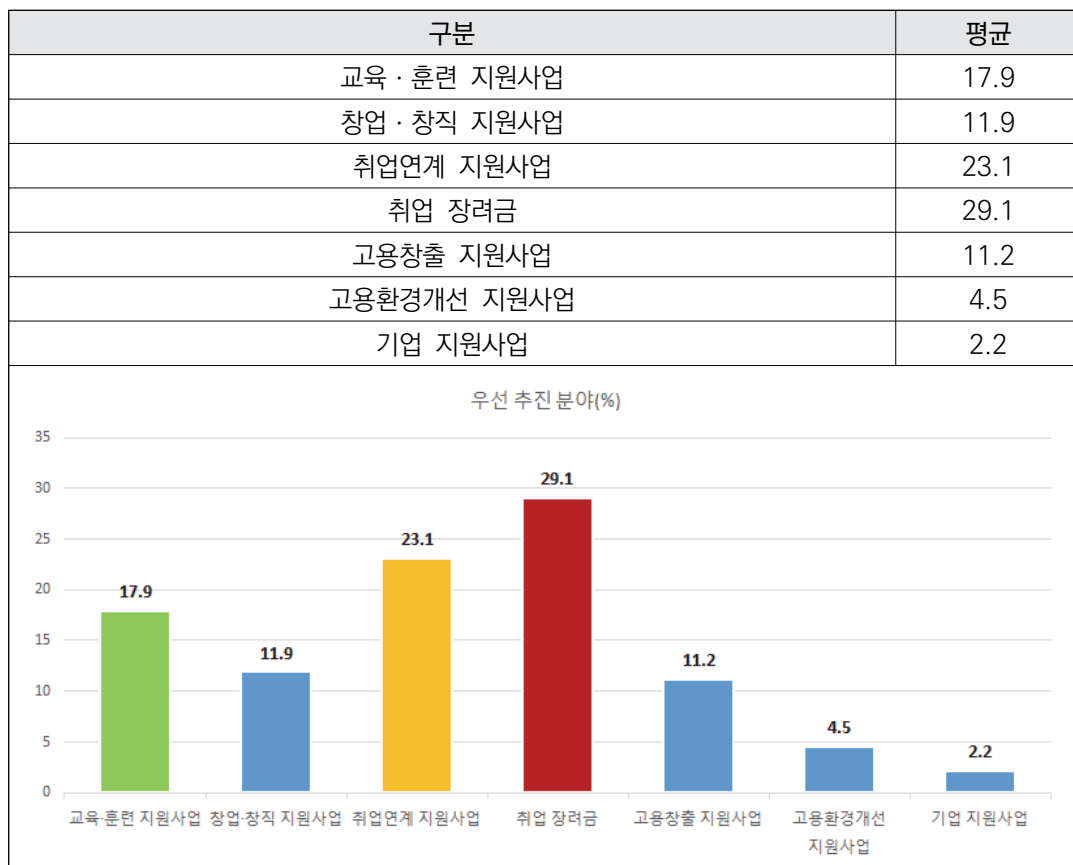
- 서산시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로는 광업/제조업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광업/제조업 분야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표 8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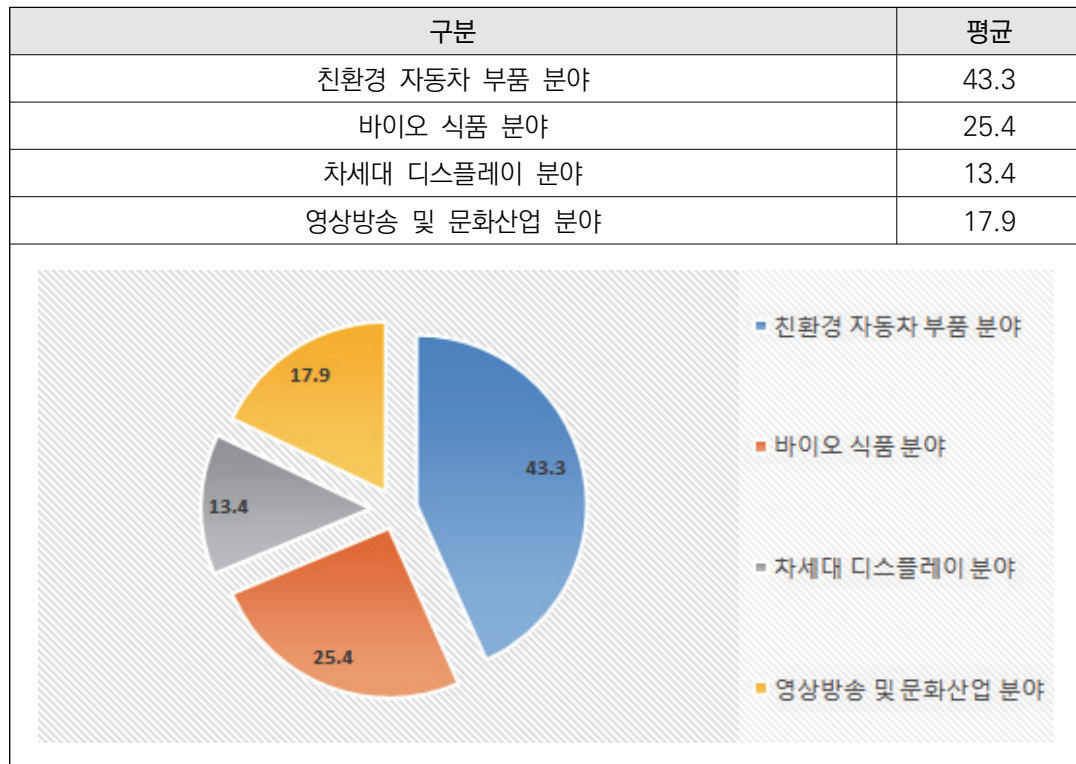
(단위: %)



-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로는 취업 장려금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연계 지원, 교육·훈련 지원이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성공장려금,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 청년들의 교육·훈련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표 8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우선추진 업종

(단위: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이오 식품 분야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는 자동차와 바이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표 86〉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우선추진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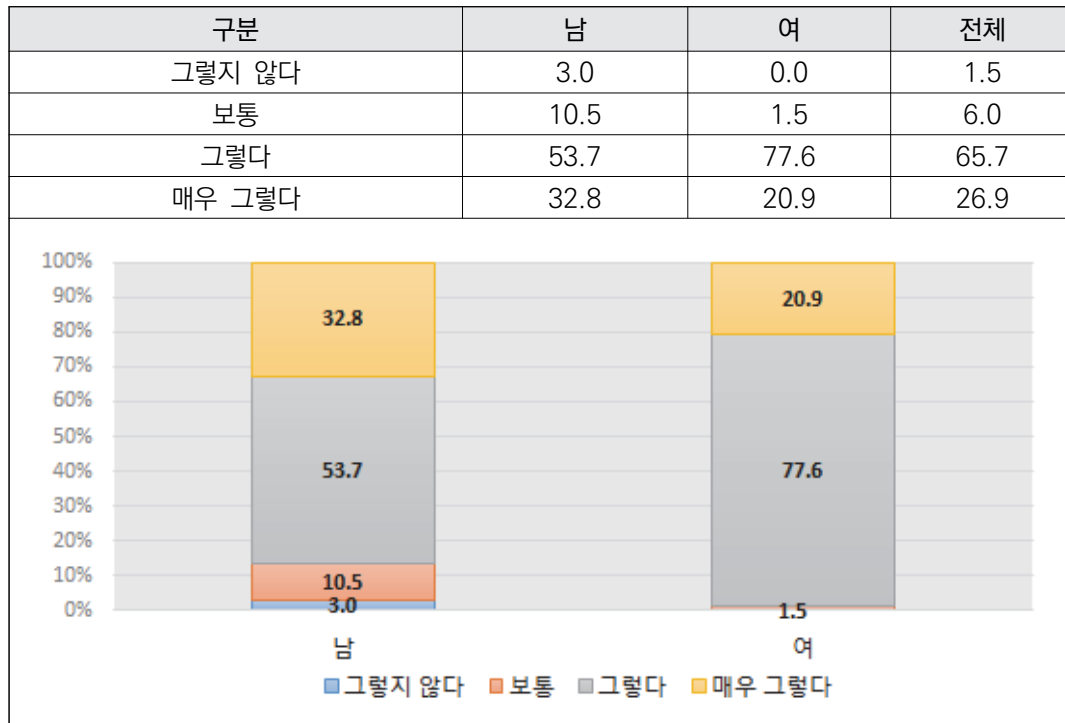
구분	평균
지역정착지원	46.3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37.3
민간취업연계	16.4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정착 지원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이 37.3%로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에서는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책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에 노력해야함

〈표 87〉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필요성

(단위: %)



-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92.6%의 청년들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음
- 남성 보다는 여성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가 필요





## V. 요약 및 시사점

---



## ■ 서산시의 산업구조

- 서산시의 경우 석유화학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이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제조업,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나,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여겨짐

서산시 주요 산업		
석유화학 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 이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 서산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군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충남의 타 시군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전반적으로 남성채용 비중이 높는데 서산시 제조업의 경우 여성 친화형 일자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석유화학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는 전문대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는 대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 인재육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서산시 일자리의 특징		
높은 정규직 비중	높은 남성채용 비중 (여성 친화형 일자리 부족)	산업별 선호 학력에 차이
→ 일자리의 질이 충남의 타 시군보다는 우수 → 산업별 인재육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 청년채용 현황 및 문제점

- 서산시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 자립적인 고용시장으로 여겨짐
  - 특히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제조업,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나,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전 산업 평균 남성 채용 비중이 85%로 여성의 1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서산시 제조업의 경우 여성 친화형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한 이유로는 담당직무가 남자에게 보다 적합해서라는 의견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 보임
- 그러나 전체 기업의 90.0%가 청년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서산시의 경우 청년들의 구직난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서산시가 제조업기반이고,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눈높이 미스매칭 때문으로 여겨짐
  - 아직까지 청년들과 기업체 간 임금수준에 대한 미스매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주여건 불편도 지역 내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나 일자리 정책과는 별도로 정주여건 개선에도 서산시의 노력이 필요

서산시 고용시장의 특징		
자립적인 고용시장 (높은 지역인재 채용비중)	제조업분야 부족한 여성일자리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의 구인난 심화
→ 자립적인 고용시장으로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음 → 서비스산업 육성 등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 필요 → 청년과 중소기업간 친밀도 향상 필요		

## ■ 청년취업 현황 및 문제점

서산시 요소시장 특징				
수도권 중소기업 선호	낮아지는 일자리 눈높이	여성의 지역정착 성향	제조업 취업 기피	부족한 오프라인 구직정보
→ 서산시의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이를 감안한 교육이 필요 → 남성의 경우 지역기업의 홍보와 친밀도를 높이는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서산시의 경우 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 필요 → 온라인 정보보다 취업박람회, 리쿠르팅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들의 선호 기업은 중소기업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이 31.3%, 공무원이 11.9%로 나타났음
- 문제는 서산시의 청년들의 55.2%가 수도권 기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며, 남성의 경우 61.2%가 수도권 기업을 선호
- 따라서 서산시의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하며, 지역 기업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기업과 연계된 올바른 직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청년들의 역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서산시 청년들의 44.0%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최근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절벽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눈높이도 이에 따라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서산시 청년들의 63.4%가 서산시에서 현재 일자리가 난다면 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성의 경우 67.2%가 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이를 감안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지역기업의 홍보와 친밀도를 높이는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이유로는 수도권은 집값,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의 스펙과 전공으로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가 21.2%로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 청년들의 정주여건과 환경을 개선한다면 서산시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스펙과 전공에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
- 서산시 기업체에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서산시의 일자리가 주로 제조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급여가 낮아서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는 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제조업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과 관련된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들의 34.3%가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민간 구직사이트가 32.1%로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의 경우 취업박람회 등 오프라인의 구직정보가 부족한데, 서산시처럼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온라인 정보보다 취업박람회, 리쿠르팅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근로조건이었으며, 임금수준, 직원복지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 청년들을 서산시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서산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임금수준, 직원복지 등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

## ■ 청년취업 미스매칭

서산시 고용시장 미스매칭				
일자리 미스매칭			직무교육 미스매칭	정주환경 미스매칭
임금수준 격차 발생	관련전공 일자리 부족	지역 중소기업 비 선호	직업능력 부족	높은 이직률
<p>→ 사무직의 평균 초임연봉이 서비스/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기대수준과는 차이가 큼</p> <p>→ 서산시에서는 학력 및 전공과 일자리 직무 간에 미스매칭이 있으며, 이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p> <p>→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은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서산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 필요</p> <p>→ 지역 내 기업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직무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p> <p>→ 서산시의 경우 청년들의 이직의향이 높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사전 직무교육이 중요</p>				

- 서산시 기업체의 사무직 평균 초임연봉이 2,667만원, 서비스/판매직의 초임연봉이 2,583만원, 생산직의 초임연봉이 2,403만원인 것에 비해, 청년들의 받고자 하는 초임 연봉 수준은 사무직기준 3,08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의 경우 2,984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음
  - 대부분 사무직의 평균 초임연봉이 서비스/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청년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음
- 전체 기업체의 80.9%가 현재의 초임수준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인기 직종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
- 선호하는 학력의 청년채용에 53.6%의 기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기업체와 청년들 간 학력별 미스매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그 특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서산시 기업체의 경우 71.8%가 선호하는 전공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기업체와 청년들 간 전공별 미스매칭도 나타나고 있음
  - 전공별로 살펴보면 서산시의 주력 산업군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분야이기 때문에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을 선호하나, 서산시 청년들의 전공은 인문/어학 비중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 21.6%, 경상 16.4%로 다음 순이었음
  - 특히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및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선호하는 전공의 채용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청년들도 서산시에 전공 관련 일자리가 충분한지에 47.8%의 청년들이 그렇지않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에서는 전공과 일자리 직무 간에 미스매칭이 있으며, 이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청년들의 41.0%가 서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일자리 눈높이에 대한 미스매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
- 기업들은 청년 채용시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이 채용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들 또한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증이 취업시 중요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서산 소재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생의 직업능력에 57.3%의 기업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다 양질의 직무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특히 서산시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비주력산업에 대한 직무교육(직업훈련) 확대는 물론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직무교육의 질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서산소재 기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 92.7%가 이직을 경험하였으며, 산업별로도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채용인원 중 평균 이직률은 34.0%로 10명을 뽑으면 2년 안에 3명 정도가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인재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직방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청년조사에서도 41.8%의 청년들이 서산시 취업한 이후에도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이직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 후에도 남성 취업자가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이직이유로는 정주 및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 및 복지 수준 불만이 다음 순 이었고 청년조사에서도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로 정주 및 근로환경이 수도권에 더 좋아서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서산시의 경우 지역인재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직방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이직하려는 이유가 급여나 복지 수준보다는 정주여건이나 근로환경에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서산시 기업체의 66.4%, 청년들의 70.9%가 지역기업과 연계해서 사전 직무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직률이 줄 것이라고 응답
- 서산시의 경우 청년들의 이직의향이 높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사전 직무교육이 필요

## ■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서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일자리 사업 낮은 인지도	부족한 직무교육	낮은 교육수준	청년들의 높은 참여의지
→ 아직까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져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필요 → 선진국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기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청년들의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다면,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가능			

- 기업체의 66.4%, 청년들의 75.4%가 청년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
- 서산시의 경우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외에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
- 기업체의 67.3%, 청년들의 70.2%가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
- 아직까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져 홍보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사업이 실제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산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
- 기업체의 37.3%만 서산시에서 청년들이 취업 전 직무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여 서산시의 청년 직무교육량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청년들의 경우 64.2%가 서산에서 직무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에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체의 32.7%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직무교육수준은 아직까지 낮은 편으로 선진국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기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그러나 청년들의 경우 50.7%가 청년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에 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차이도 나타나고 있어 지역기업과 연계된 올바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청년들의 76.9%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년들의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다면,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가능

지역 내 취업을 위한 주체들의 역할					
기업이 해야 할 일		청년이 해야 할 일		서산시가 해야 할 일	
적정한 임금지급	복지/문화 생활지원	일자리 눈높이 조정	중소기업 인식변화	채용우수 기업지원	일자리 지원조직 확대
→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산시 차원에서 지역 기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 →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 → 서산시에서는 채용우수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확대도 필요					

- 청년들의 역내 취업을 위해 기업들이 해야 할 일로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서 적절한 임금 지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리후생, 문화생활 지원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서산시의 경우 지역기업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확대도 필요하며, 기업들도 적절한 임금 지급과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함

-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일도 기업과 청년조사 모두에서 임금, 복지 등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다음 순이었음
-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산시 차원에서 지역 기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
- 청년들의 역내 취업을 위해 충남과 서산시가 해야 할 일로 기업체와 청년 모두에서 청년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원 조직의 확대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에서는 채용우수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제언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일자리		
필요 일자리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성
(기업)광업/제조업	(청년)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업체 87.3%, 청년 92.6%
→ 서산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제조업은 물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대부분의 기업체와 청년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필요성 인식		

- 서산시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로는 기업체와 청년 모두에서 광업/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지만, 청년의 경우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필요한 일자리라고 응답
- 서산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광업/제조업 분야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추진 분야	우선추진 업종
취업장려금, 취업연계 지원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 식품
→ 기존의 사업들이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초점이 있었다면, 기업체의 입장을 감안하여, 보다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성 → 서산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성공장려금,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 청년들의 교육·훈련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자동차와 바이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정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로 기업체와 청년들 모두 취업 장려금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연계 지원사업이 다음 순이었음

- 기존의 사업들이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초점이 있었다면, 기업체의 입장을 감안하여, 보다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 서산시는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성공장려금,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 청년들의 교육·훈련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업종으로는 기업체와 청년들 모두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바이오 식품 분야가 다음 순이었음
- 서산시는 자동차와 바이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발굴하고, 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추진 사업(기업)		우선추진 사업(청년)	
지역정착지원	민간취업연계	지역정착지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 서산시에서는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사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에도 노력해야함(청년에게 올바른 창업기회 제공이 필요)			

- 기업체의 경우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서산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역정착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취업 연계가 다음 순이었으나, 청년의 경우는 지역정착지원 다음으로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으로 나타났음
- 서산시에서는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에도 노력해야함(청년에게 올바른 창업기회 제공이 필요)
-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서산시의 기업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기업체 87.3%, 청년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남성 보다는 여성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가 필요

## 부 록

---

1. 지역산업맞춤형(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설문조사(사업체용)
2. 지역산업맞춤형(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설문조사(청년용)







a3\_1.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담당직무가 남자(또는 여자)에게 보다 적합해서      ② 관련 전공자가 주로 남자(또는 여자)여서  
 ③ 응시자 대부분이 남자(또는 여자)여서      ④ 특별한 이유 없음  
 ⑤ 기타 ( )

a4. 귀사는 청년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a4\_1. 어려움이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 불일치      ② 지원자의 직무역량 부족  
 ③ 회사의 낮은 인지도      ④ 회사의 위치 및 정주여건 불편  
 ⑤ 청년들의 높은 기대수준(임금, 복지 등)      ⑥ 선발한 신입사원들의 잦은 이직  
 ⑦ 기타 ( )

<b>B</b>	<b>청년채용 미스매칭</b>
----------	------------------

b1. 귀사의 정규직 기준 청년 초임연봉은 대략 얼마입니까?(관련 직무가 없으면 비워두세요)

직무	임금
사무직	( )만원
서비스/판매직	( )만원
생산직	( )만원

b1\_1. 그렇다면 귀사는 현재 초임연봉 수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2. 귀사는 지난 2년간 청년 채용 시 어떤 학력을 가장 선호하였습니까?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학력상관 없음

b2\_1. 그렇다면 귀사가 선호하는 학력의 청년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b3. 귀사는 지난 2년간 청년 채용 시 어떤 전공계열을 가장 선호하였습니까?

- ① 인문 어학계열      ② 사회계열      ③ 법정계열  
 ④ 경상계열      ⑤ 교육계열      ⑥ 공학계열  
 ⑦ 자연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의약계열

b3\_1. 그렇다면 귀사가 선호하는 전공계열의 청년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름	모름	보통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적절한 임금 지급                      ② 복리후생 문화생활 지원

③ 정주여건 지원                          ④ 지자체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

⑤ 기타 ( )

① 임금, 복지 등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조정      ②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③ 자식의 역량 강화      ④ 지자체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  
⑤ 기타 ( )

- ① 도내 기업체 인식개선 사업 강화(기업현장투어, 복지제도소개 등)
- ② 지역 청년 채용할당제(신규 채용의 몇 %는 지역 청년 채용) 확대
- ③ 청년일자리 팀 신설 및 확대
- ④ 청년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강화
- ⑤ 지역기업 연계 직무교육 등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① 농림어업	② 광업/제조업	③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
④ 건설업	⑤ 도매 및 소매업	⑥ 운수 및 창고업
⑥ 숙박 및 음식점업	⑦ 정보통신업(출판/영상/방송 등)	⑧ 금융 및 보험업
⑨ 부동산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⑫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⑭ 협회 및 단체

D

지역산업맞춤형(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d1.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훈련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실무자 양성과정(○○관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양성과정(○○현장실습)
② 창업·창직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창업 과정(○○공예품 창업지원)
③ 취업연계지원사업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사업
④ 취업장려금	청년 취업성공장려금 지원사업
⑤ 고용창출지원사업	청년 고용창출지원사업
⑥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국가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운행 국가산업단지 내 기숙사 지원사업
⑦ 기업지원사업	유연근무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d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
- ② 바이오 식품 분야
- ③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 ④ 영상방송 및 문화산업 분야

d3. 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정착지원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②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
③ 민간취업연계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직접적인 일경험 및 구직활동 지원

d4. 귀사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서산시의 기업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d5.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지역산업맞춤형(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설문조사(청년용)

지역산업맞춤형(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설문조사(청년용)

Q

청년의 기초자료(서산시 거주 청년만 조사)

q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조사원 기입

① 남성

② 여성

q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졸

② 전문대 재학 또는 전문대졸

③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 이상

q4.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인문 어학계열

② 사회계열

③ 법정계열

④ 경상계열

⑤ 교육계열

⑥ 공학계열

⑦ 자연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의약계열

A

청년취업 현황 및 문제점

a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곳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공무원

④ 공기업

⑤ 창업준비

⑥ 기타( )

a2. 귀하는 취업 시 서산시 소재 기업을 더 선호하십니까? 수도권 기업을 더 선호하십니까?

① 서산시

② 수도권

③ 아무 곳이나 상관없음

a3. 귀하는 채용분야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a4. 귀하는 현재 서산시에서 일자리가 난다면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4\_1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스펙, 출신학교, 전공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
- ② 중견기업의 월급은 수도권 일자리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 ③ 수도권은 집값,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
- ④ 연고지(집, 출신학교, 가족 등)가 원래 서산시이어서
- ⑤ 서산에서 만든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 ⑥ 서산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 ⑦ 중소기업은 월급이 적지만 대기업 보다 일찍 퇴출되지 않으니까
- ⑧ 기타( )

a4\_2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에서 일하거나 정착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 ② 서산은 서비스업 보다 주로 제조업 일자리여서
- ③ 대학에 오기 전에 연고지(집)가 원래 수도권 등 타지역이어서
- ④ 서산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여가 문화혜택, 넓은 건물 등)
- ⑤ 서산에 갈만한 기업체가 어딘지 잘 몰라서(예. 어떤 좋은 기업이 있는지)
- ⑥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수도권에 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⑦ 서산 중소기업에 대해 막연한 거리낌이 들어서
- ⑧ 기타( )

a5. 귀하는 일자리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 ① 학교 취업지원센터
- ② 민간 구직사이트(예. 인쿠르트, 사람인 등)
- ③ 고용센터, 워크넷 사이트
- ④ 교수나 가족 친지
- ⑤ 선후배 등 또래 집단
- ⑥ 취업박람회, 리쿠르팅
- ⑦ 인터넷의 유명 취업카페, 블로그
- ⑧ 기타( )

a6. 귀하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① 임금(소득)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② (임금 이외의) 직원복지	①	②	③	④	⑤
③ 근로조건(업무시간, 근무환경·강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④ 고용안정(정년보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⑤ 자신의 적성 및 전공	①	②	③	④	⑤
⑥ 자신의 성장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⑦ 회사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⑧ 교통편의·주변의 생활여건	①	②	③	④	⑤
⑨ 기업의 명성(대기업, 공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⑩ 기업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①	②	③	④	⑤





b7\_1받은 적이 있다면 직무관련 받았던 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b8. 귀하는 서산시의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도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b8\_1. 그렇다면 수도권 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도권 기업의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 ② 정주 및 근로환경이 수도권이 더 좋아서
- ③ 일의 강도나 내용이 수도권 기업이 더 좋을 것 같아서
- ④ 내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어서
- ⑤ 기타 ( )

b9. 지역 연고기업과 연계해서 사전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된다면, 청년들의 이직률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C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	---------------

C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	---------------

c1. 귀하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                      ② 학교(전문대학교, 대학교)                      ③ 정부 및 지자체  
④ 기타 ( )

c2. 귀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름	모름	보통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c3. 귀하는 서산에서 청년들이 취업 전 직무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c4. 귀사는 서산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의 직무관련 교육 프로그램(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c5. 귀하는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c5\_1.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직무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소하고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 ② 스스로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 ③ 참여해 본 지인의 얘기가 좋지 않아서
- ④ 참여하고 싶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
- ⑥ 기타( )

c6. 귀하는 서산시의 학생들을 서산시의 기업에 취업시키려면 기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한 임금 지급
- ② 복리후생 문화생활 지원
- ③ 정주여건 지원
- ④ 지자체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
- ⑤ 기타 ( )

c7. 귀하는 서산시의 학생들이 서산시의 기업에 취업하려면 청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금, 복지 등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조정
- ②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 ③ 자식의 역량 강화
- ④ 지자체의 일자리사업(프로그램) 참여
- ⑤ 기타 ( )

c8. 귀하는 서산시의 학생들을 서산시의 기업에 취업시키려면 충남이나 서산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

- ① 도내 기업체 인식개선 사업 강화(기업현장투어, 복지제도소개 등)
- ② 지역 청년 채용할당제(신규 채용의 몇 %는 지역 청년 채용) 확대
- ③ 청년일자리 팀 신설 및 확대
- ④ 청년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적 혜택 및 홍보 강화
- ⑤ 지역기업 연계 직무교육 등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c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야의 청년일자리가 서산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림어업
- ② 광업/제조업
- ③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
- ④ 건설업
- ⑤ 도매 및 소매업
- ⑥ 운수 및 창고업
- ⑥ 숙박 및 음식점업
- ⑦ 정보통신업(출판/영상/방송 등)
- ⑧ 금융 및 보험업
- ⑨ 부동산업
-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⑪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⑫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⑬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⑭ 협회 및 단체

D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d1.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훈련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실무자 양성과정(○○관리과정)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양성과정(○○현장실습)
② 창업·창직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창업 과정(○○공예품 창업지원)
③ 취업연계지원사업	취업연계 플랫폼 구축사업
④ 취업장려금	청년 취업성공장려금 지원사업
⑤ 고용창출지원사업	청년 고용창출지원사업
⑥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국가산업단지 내 셔틀버스 운행 국가산업단지 내 기숙사 지원사업
⑦ 기업지원사업	유연근무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d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
- ② 바이오 식품 분야
- ③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 ④ 영상방송 및 문화산업 분야

d3. 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정착지원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②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공간,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
③ 민간취업연계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직접적인 일경험 및 구직활동 지원

d4. 귀하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서산시의 기업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d5.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홈페이지 : <http://www.reis.or.kr/report/list.do>

\_\_\_\_\_,(2017),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

대전고용노동청 공고 제2018-1호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충청남도(일자리노동정책과),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요약본, 2018.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홈페이지 :

<https://eis.work.go.kr/eis01010.do?selectMenuId=061020&reportMenuId=#none>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 :

[http://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_2/screen.do](http://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_2/screen.do)

# 참여연구진 및 연구자문

주 관 기 관	서산시청	
연구수행기관	충남연구원	
연 구 책 임	김 양 중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내부연구진	신 동 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민 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송 민 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윤 종 선	충남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자 문 위 원		
행 정 지 원	김 인 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서 병 제	서산시 취업지원팀장
	박 은 영	서산시 담당자

